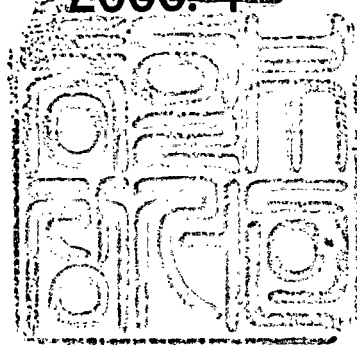


# 동서독 통합 관련 기관 편람

(Die Institutionen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im Überblick)

2006. 4



953

통 일 부



- 「동서독 통합 관련 기관 편람」은 독일 통일 이후 각 분야별 통합을 추진한 70여개 기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통합 관련 기관은 이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하여 해체된 기관(후속기관이 설립되는 경우도 있음)과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기관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서는 현재 활동여부와 관계없이 동서독 통합을 위해 통일 이후 새로이 설립된 기관은 물론 기존 기관에 새로운 임무가 부여된 경우까지를 가급적 모두 망라하였습니다.
- 이 자료는 각 기관별로 개요 및 약사, 역할 및 과제, 조직, 성과, 간행물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정리하였고, 접촉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연락처와 인터넷 주소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 「동서독 통합 관련 기관 편람」이 독일 통합과정에 관심 있는 분들과 관계 전문가 여러분의 연구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06. 4

정 책 홍 보 실



## 편자 서문

‘동서독 통합 관련 기관 편람(Die Institutionen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im Überblick)’이라는 제목으로 편찬된 본 책자는 통일부와 주독 한국 대사관에 의해 계획되었다. 수록된 내용의 강조점은 1990년 독일 통일의 맥락 속에서 새로운 임무가 부여된 국가기관, 위원회 등 관련 조직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에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이미 해체된 기관도 포괄하였다.

1990년 10월 3일 이루어진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통일과 관련하여 얼마간의 기관들이 새롭게 생겨났다. 전담기구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1990년 8월 31일의 통일조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독이 서독 헌법 146조(새로운 헌법 제정에 의한 통일)가 아닌 23조에 따라 새로운 주로서 편입하는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통합부 또는 새로운 연방주의 건설을 위한 중앙기구를 설립하지 않았다. 본 책자에 수록된 거의 대부분의 기구는 기존 국가기구이거나 기존 국가기구로부터 생겨났다. 중요한 예외는 동독 민주혁명의 산물로서 탄생한 신탁관리청이다.

‘동서독 통합 관련 기관 편람’은 복잡한 통합과정의 단지 일부분이라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많은 문제와 과제들이 통합이라는 특별한 명칭을 지니지 않은 국가기관에 의해 처리되기도 하였다. 우선 언급되어야 할 기관은 연방의 각 부처들이다. 이들 기관들은 내부에 관련 과제들의 해결을 위한 특별 조직이나 T/F를 설치하였다. 예외적으로 언급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현존하고 있는 연방재무부와 연방경제기술부의 신연방주(구동독) 담당 부서이다. 또한 새롭게 탄생한 연방주, 작센, 튀링엔, 작센-안할트,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베를린 주에서는 전환과정에서 각 주정부의 기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주정부 수준에서의 기관들 역시 예외로 하여 본 책자에는 기술하지 않았다.

본 개괄적 안내서는 1990년 통일 이후 국가기관의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통일에 대한 분석과 기술일 수 있다. 경제·정치·사회 등 제 분야에서 동독의 서독으로의 통합 과정을 다루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동 책자가 하나의 주제로 접근하는 통로일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과정의 몇 개 분야는 심도있게 취급되기도 하였지만,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전체적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동 책자의 작성을 위한 자료의 조사수집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책을 편찬함에 있어 동독국가안전부 중앙문서관리청의 경우, 제4장 역사적·정치적 청산, 제7장 문서보관서에서 중복하여 취급하였는데, 동 기관은 몇 개 분야에 걸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다. 서술된 기관이나 조직은 많은 경우에 있어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치 교육센터는 정치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역사적·정치적 청산, 그리고 연구결과의 출판도 담당하고 있다.

책자에 실린 내용의 대부분은 해당 기관의 자체적 설명과 담당자와의 인터뷰에 의존하였다. '동서독 통합 관련 기관 편람'은 한 달 남짓하게 주어진 짧은 기간에 의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 비판적 조사연구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다.

# 목 차

## ◆ 편자 서문

I . 경제적 전환 .....	1
1. 신연방주 특입관 .....	3
2. 연방재무부(8실) .....	6
3. 연방경제기술부(1실) .....	7
4. 신탁관리청(THA) .....	8
5. 통일 특수과제청(BvS) .....	11
6. 신탁토지회사(TLG) .....	13
7. 토지 이용·관리회사(BVVG) .....	14
8. 베를린 지주관리회사(BMGB) .....	15
9. 재건신용은행(KfW) .....	16
10. 산업투자협의회(IIC) .....	20
II . 재산문제 처리 .....	23
1. 연방 중앙행정·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BADV) .....	25
2. 주정부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LARoV) .....	28
3. 동독 당·대중조직 재산검증위원회(UKPV) .....	32
III . 법적 청산 .....	37
1. 동독정부·통일 범죄 중앙수사처(ZERV) .....	39
2. 동독 정부범죄 태스크포스 / 검찰 2국 .....	41
3. 중앙 동독범죄기록처 .....	43
4. 복권재판소 .....	45

IV. 역사적 · 정치적 청산 .....	51
1. 동독 국가안전부 중앙문서관리청(BStU) .....	53
2. 연방하원 앙케이트위원회 .....	58
3. 동독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 청산재단(Stiftung Aufarbeitung) .....	61
4.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州) 앙케이트위원회 .....	66
5. 연방하원 조사위원회 .....	68
V. 정치 교육 .....	71
1. 연방정치교육센터 .....	73
2. 주(州) 정치교육센터 .....	76
3. 주(州) 동독국가안전부 문서관리청(LStU) .....	79
4. 정치재단 .....	82
VI. 연구 기관 .....	97
1.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연구소 .....	99
2. 뮌헨현대사연구소 베를린분소 .....	101
3. 동독사회주의통일당(SED)-국가 공동연구그룹 .....	102
4. 포츠담 현대사연구소 .....	104
5. 군사(軍史)연구청 .....	105
6. 할레 경제연구소 .....	107
7. 응용정치연구센터 .....	108
VII. 문서보관소 .....	111
1. 연방문서보관소 동독담당국 .....	113
2. 동독 당·대중조직 문서보관재단(연방 문서보관소) .....	114
3. 동독 국가안전부 문서보관소 .....	114
4. 외교부 정치관련 문서보관소 .....	115
5. 독일 방송문서보관소 .....	116
6. 베를린주 문서보관소 .....	117



7. 브란덴부르크주 중앙문서보관소 .....	117
8.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중앙문서보관소(슈베린) .....	118
9. 작센주 중앙문서보관서(드레스덴) .....	119
10. 작센 안할트주 중앙문서보관소 .....	120
11. 튀링엔주 중앙문서보관소(바이마르) .....	121
12. 마티아스-도마실 문서보관소 .....	122
13. 로버트-하베만 문서보관소 .....	122
14. 그로스헤너스도르프 환경도서관 문서보관소 .....	123
15. 라이프치히 시민운동 문서보관소 .....	124
16. 베를린 탈출지원 문서보관소 .....	124
17. 베를린 장벽 문서보관소 .....	125
18. 민주사회당 문서보관소 .....	126
19. 민주사회주의 문서보관소(로자 룩셈부르크 재단) .....	127

## VIII. 박물관, 기념관 .....

1. 독일 역사박물관 .....	131
2. 독일 연방공화국 역사의 집 .....	132
3. 라이프치히 현대사 포럼 .....	133
4. 소련 특별수용소 7/1(1945-50) 박물관 .....	133
5. 마리엔본 독일분단 기념관 .....	134
6. 라이프치히 '룬덴 에케' 박물관 .....	135
7. 베를린-호엔쉬하우젠 기념관 .....	136
8. 노만넨슈트라세 아스타 연구·기념관 .....	136
9. 베를린 장벽 기념관 .....	137

## IX. 정기간행물 .....

1. 도이칠란트 아히브 .....	141
2. SED-Staat 포르슈페어분트지(誌) .....	141
3. 슈타헬드라트 .....	143
4. 호르호 운트 굽 .....	144
5. 게버가세 18, 역사 및 예술 포럼 .....	145

X. 시민운동 이니셔티브 .....	147
1. 시민운동연합 .....	149
2. 공산주의 폭력 희생자 단체 연맹 .....	149
3. 스탈린주의 희생자 연합 .....	150
4. 로버트-하베만 협회 .....	151
5. 국가안전부 과거청산 '1·15' 시민위원회 .....	151
6. 유럽 정치폭력 희생자 지원연합 .....	152
7. 민주주의·인권의 집 .....	153

※ 독일통일 연구를 위한 기타 안내서

## I. 경제적 전환

1. 신연방주 특임관
2. 연방재무부(8실)
3. 연방경제기술부(1실)
4. 신탁관리청(THA)
5. 통일 특수과제청(BvS)
6. 신탁토지회사(TLG)
7. 토지 이용·관리회사(BVVG)
8. 베를린 지주관리회사(BMGB)
9. 재건신용은행(KfW)
10. 산업투자협의회(IIC)



# 1. 신연방주 특임관

## (Der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Angelegenheiten der neuen Länder)

### 개요:

신연방주 특임관은 신연방주(구동독지역)와 관련된 모든 정책 분야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진다. 또한 연방 정부 차원에서 구동독지역의 재건 관련 업무를 계획하고 조정한다.

### 신연방주 특임관:

Wolfgang Tiefensee(2005.11~ )

Manfred Stolpe(2002~2005)

Rolf Schwanitz(1998~2002)

Rudolf Geil(1997~1998)

Johannes Ludewig(1991~1997)

### 주소/연락처: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und Wohnungswesen(연방교통건설주택부)

Invalidenstraße 44

10115 Berlin

우편주소:

11030 Berlin

전화: (+49 18 88) 3 00-0

팩스: (+49 18 88) 3 00 19 20

E-Mail: [poststelle@bmvbw.de](mailto:poststelle@bmvbw.de)

Internet: <http://www.bmvbw.de>

### 약사:

통일 이후 신연방주 특임관의 기능은 독립된 부서가 아니라, 연방정부 또는 연방총리실의 일부로서 존재하여 왔다.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운영되어 왔다.

- 1991~1994, 연방총리실의 경제·재정정책국장이 신연방주 조정관(Koordinator) 겸임
- 1994~1998, 연방경제부 차관이 신연방주 특임관 겸임
- 1998~2002, 연방총리실의 사무차관이 신연방주 특임관 겸임
- 2002년 이래 연방 교통건설주택부 장관이 신연방주 특임관 겸임

1989년 이후 요한네스 루데비히(기민당)는 연방총리실에서 동독 및 신연방주와 관련 연방정부의 경제·사회·재정정책을 계획·수립하였는 바, 1991년 헬무트 콜(기민당) 총리가 루데비히를 총리실 경제·재정정책의 국장으로 임명하면서, 신연방주 조정관으로도 임명하였다. 조정관의 업무는 신연방주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의 도입과 경제발전의 지원이었다.

1994년말 신연방주에서 시장경제의 구축이 마무리되었고, 루데비히는 연방경제부 차관의 직무를 맡게 되었다. 이와 함께 연방경제부가 신연방주 재건의 업무를 맡게 되었고, 루데비히는 신연방주 특임관이라는 새로운 직위를 부여받았다. 1997년 5월 1일 루디 가일(Rudi Geil)이 신연방주 특임관에 임명되었다.

1998년 총선거에서 게하르트 슈뢰더(Gehard Schröder, 사민당)는 구동독지역 재건을 선거의 중심과제로 내세웠다. 사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후, 구동독지역의 국회의원인 롤프 슈바니츠(Rolf Schwanitz)가 연방총리실의 사무차관으로서 임명되었고 신연방주 특임관의 업무도 겸임하였다. 2002년 9월 사민당이 총선거에서 재 승리한 후 신연방주 재건 업무는 연방교통건설부 장관 만프레드 슈톨페(Manfred Stolpe, 사민당)에게 이관되었다.

연방총리실의 구동독지역재건국은 연방교통부의 지역·구조정책국으로 통합되었고, 이후에는 구동독지역 재건·지역개발·구조정책국이 되었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신연방주 조정관의 지위는 매우 강력하였고 수많은 과제를 담당하였으나, 이후 신연방주 특임관으로 변화하면서 업무가 부처로 이관되고 장, 차관이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미는 상당히 약화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신연방주 특임관의 과제가 과거에 비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역할/과제:**

2002년 10월 이후 교통건설주택부장관이 신연방주 특임관을 겸임하고 있다. 신연방주 특임관의 업무는 공식적으로 구동독지역 재건으로 칭하기도 한다.

업무영역은 연방정부의 각 부서업무와 다양한 부문에서 중복되고 있는 구동독지역

재건 업무를 조정하는 포괄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연방교통부가 관할하고 있는 업무뿐만 아니라 구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전반적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신연방주 특임관의 업무에 속한다.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 구동독지역 재건과 관련된 과제의 조정을 위해, 신연방주 특임관은 신연방주와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 부서권을 갖는다. 또한 신연방주 특임관으로서 연방정부 내각의 투표권을 갖는 일원이 된다. 특임관은 시민, 단체, 기업 등에 의해 제기되는 신연방주의 문제와 질문에 대해 답해야 한다.

#### 조직:

2002년 10월 연방교통건설주택부에는 구동독지역 재건·지역개발·구조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만들어졌다. 이 부서는 아래와 같은 업무 영역을 갖고 있다:

- 기본적 현안과 전체적 계획
- 재정, 신탁 및 공적재산문제
- 노동정책과 사회정책
- 기업 지원 및 상담자 역할
- 교육·연구·기술정책

이 부서는 현재 사무차관인 엥겔버트 뢰트케 달트롭(Engelbert Lütke Dladrup)의 관할하에 있다. 동독재건, 지역질서 및 구조정책국의 국장(실장)은 페터 알트셰코프(Peter Alltschekow)이다.

#### 간행물:

연방정부는 매년 신연방주 특임관이 작성한 독일통일현황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책으로 발간해왔다(2003년 독일통일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연례보고는 연방정부의 인쇄물 15/1550로 발간되기도 하였다).

아래의 인터넷 주소에서 2003~2005년까지의 연례보고서를 볼 수 있다.

<http://www.bmvbs.de/beauftragter/Zukunft-Ostdeutschland/-,1659/Jahresberichte-Deutsche-Einhei.htm>

**2. 연방재무부(8실) : 사유화 및 지주정책, 신탁청 후속과제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Abteilung VIII :  
Privatisierungs-, und Beteiligungspolitik,  
Treuhandnachfolgeaufgaben)**

**개요:**

연방재무부는 1990년 이래 독일 통일의 재정지원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연방재무부에서 '사유화 및 지주정책, 신탁청 후속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8실'은 특히 동독 국유재산의 사유화, 통일관련 특수과제청(BvS)·동독 당·대중조직 재산 검증위원회·신탁관리청 후속기관·동독이 남겨 놓은 환경오염처리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실장:**

Dr. 에버하르트 롤레(Ebehard Rolle)

**주소/연락처:**

Graurheindorfer Straße 108

53117 Bonn

우편주소

사서함 13 08

53003 Bonn

전화: (+49 18 88) 6 82 10 00

팩스: (+49 18 88) 6 82 11 50

E-Mail: [poststelle@bmf.bund.de](mailto:poststelle@bmf.bund.de)

인터넷: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sid\\_662F5C143AB36F4D72A83EB40838D969/DE/Home/homepage\\_\\_node.html\\_\\_nnn=true](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sid_662F5C143AB36F4D72A83EB40838D969/DE/Home/homepage__node.html__nnn=true)



**3. 연방경제기술부(1실) : 경제정책**  
**(Bundesministerium fuer Wirtschaft und Technologie, Abteilung I) :**  
**Wirtschaftspolitik**

**개요:**

1990년대에 연방경제부(현재는 연방경제기술부)는 신연방주에 대한 시장경제 도입과 동독 경제체제 전환에 있어 중심적 기구였다. 조직은 기구 개편에 따라 변동되어 왔으며, 현재는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1실에서 신연방주의 노동시장, 복지 관련 경제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실장:**

쉬어거스(Dr. Schürgers)

I C 국: 구조조정정책, 신연방주의 노동시장, 보건, 사회정책 관할

I C2과: 신연방주 분야별 구조조정정책 담당

**주소/연락처:**

Scharnhorststraße 34-37

10115 Berlin

우편주소

11019 Berlin

전화: (+49 30) 20 14 9

팩스: (+49 30) 20 14 70 10

E-Mail: [poststelle@bmwi.bund.de](mailto:poststelle@bmwi.bund.de)

인터넷: <http://www.bmwi.de/BMWi/Navigation/root.html>

## 4. 신탁관리청 (THA, Treuhandanstalt)

### 개요:

신탁관리청은 동독 사회주의 몰락 이후에 동독 경제생산의 약 95%를 차지하는 인민재산을 관리하였다. 신탁관리청은 인민재산(국유재산)의 사유화, 정상화, 청산 또는 원소유자에 대한 반환을 담당하였다. 신탁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사회적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기관이었다.

### 설립:

1990. 6. 1~1994.12.31

### 청장:

라이너 골케(Reiner Gohlke): 1990. 7.15~1990. 8.29

데트레프 카르스텐 로베더(Detlef Carsten Rohwedder): 1990. 9. 1~1991. 4. 1, 좌익 테러주의자인 적군파에 의해 살해됨.

비어기트 브로이엘(Birgit Breuel) : 1991. 4.1~1994.12.31

### 주소/연락처:

신탁관리청은 1994년에 활동을 중지하였기 때문에 문의 사항은 신탁청을 관할하였던 연방재무부에 문의하여야 한다.

연방재무부

Wilhelmstraße 97

10117 Berlin

우편주소

11016 Berlin

전화: (+49 30) 22 42 - 0 oder (+49 18 88) 6 82 - 0

팩스: (+49 30) 22 42 - 32 60

E-Mail : [poststelle@bmf.bund.de](mailto:poststelle@bmf.bund.de)

인터넷: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DE/Home/homepage\\_\\_node.html\\_nnn=true/](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DE/Home/homepage__node.html_nnn=true/)

### 약사:

동독 국유(인민)재산의 관리를 위한 신탁관리청의 설립에 대한 아이디어는 '민주주의 지금(Demokratie Jetzt)' 소속의 시민운동가에 의해 제기되었고 1990년 2월 동독 원탁회의(Runden Tisch)의 중앙위원회에서 구체화되었다. 3월 1일에는 한스 모드로프(Hans Modrow)의 사회주의통일당/민사당이 원탁회의의 제안을 다루었고, '인민 재산의 신탁관리를 위한 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시민운동가들이 국유재산을 동독 국민에게 배분하는 방안을 계획하자, 모드로프 정부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였다. 국유재산은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기업은 합자회사/주식회사로 전환되어야 하였다. 신탁관리청 이사회 의장은 동독 자유민주당(LDPD) 소속의 정치인 페터 모레트(Peter Moreth)가 1990년 3월 18일 임명되었다(6월 15일까지 임무 수행). 신탁관리청은 이미 4월에 콤비나트와 국영기업들을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 6월말에는 3,500개의 기업이 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

민주적 선거에 의해 구성된 마지막 동독정권인 로타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ere) 정부는 신탁청을 넘겨받았고, 계속 존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동독 의회는 1990년 6월 17일 신탁청의 과제와 조직을 규정한 신탁법을 의결하였다. 이와 동시에 모드로프 정부에 의해 설립된 신탁청의 법적인 근거는 사라지게 되었다. 1990년 6월 17일의 신탁법은 1990년 8월 31일 통일조약의 25조를 통해 변형된 형태로 통일 독일이 따 맡았다.

### 법적 근거:

1990년 6월 17일의 신탁법은 동독 국민의회에 의해 의결되었고, 1990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간 1990년 8월 31일 체결된 통일조약 25조(신탁청 관련 사항을 규정)는 1990년 10월 3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

### 역할/과제:

신탁관리청(THA)은 1990년 10월 3일의 통일조약을 통해 공법적 권한을 지닌 연방

의 청단위 기관이 되었다. 신탁청은 업무영역과 법적 영역에 있어 연방재무부의 관할 아래에 있었다.

199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탁청은 14,500개의 기업과 200만 헥타의 농업용 토지를 관리하고 있었다. 연방재무부는 1991년 신탁청 관리자산의 가치를 2,000억 마르크로, 동시에 부채는 4,000억 마르크라고 평가하였다.

신탁청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구동독, 즉 5개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의 경제활동에 있어 국가 역할 배제
- 국영기업의 사유화, 정상화, 청산, 새로운 구조조정을 통한 시장에서의 경쟁능력 창출
- 일자리 확보
- 연방, 주정부, 지방정부에 대한 국유재산의 반환(지방화)
- 1933년 이후 소비에트점령지역과 1945년 이후 사유화된 재산의 원소유자 반환

#### 조직:

신탁청의 경영·대표위원회는 9명의 이사로 구성되었다(1992년 7월 1일부터는 10명). 이사회는 구성원은 경제계와 국가공무원 출신으로 이루어졌다. 청장은 이사회를 대표한다.

감독위원회는 17~24명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행정위원회는 신연방주의 주지사, 경제 및 노동계 대표 그리고 연방정부의 대표로 이루어졌다. 관리위원회는 신탁청장과 기타 이사회 임원을 임명하였다. 또한 이사회는 사업활동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사업보고서를 받았다.

1993년 신탁청은 5,618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거대 조직이었다. 신탁청은 9개의 집행기관으로 구성되었다 : 위원회, 사유화, 정상화/청산, 출자(Beteiligungen), 지점, 토지/리파이낸스, 재정, 인사, 특별재산/행정. 신탁청은 매트릭스조직으로 거의 모든 임원 소관부서는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제를 추진하였다. 임원 소관부서 6개, 즉 사유화, 정상화/청산, 공동출자, 지점, 토지/리파이낸스, 특별재산/행정은 1,500명 이상을 고용한 대기업의 사유화와 감독업무를 맡았다. 신탁청의 내부조직은 수차례 변경되었다.

## 5. 통일 특수과제청

(BvS,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 개요:

‘통일특수과제청’은 1994년 말에 해체된 신탁관리청의 후속기관으로 발족하였다. 동청은 신탁관리청에 의해 체결된 사유화 계약을 관리하였고 당시 사유화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유화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동독 국유기업에 의해 야기된 환경문제 등을 처리하였다.

### 설립:

1995. 1. 1~2004. 1

### 청장:

Manfred Schüler(2004. 1~ ): 해체 업무도 관장하고 있다.

Hans Heinrich Schoeder-Hohenwarth(2001. 1. 1~2003. 12. 31)

Günter Hemsted(1997. 1. 1~2000. 12. 31)

Heinrich Hornef(1995. 1. 1~1996. 12. 31)

### 주소/연락처:

사무국장 Manfred Schüler

전화: (+49 30) 2451 1009

BvS

Markgrabenstraße 45

10117 Berlin

특수과제청에 대한 문의는 연방재무부에 질의 가능

연방재무부

Wilhelmstraße 97

10117 Berlin

우편주소

11016 Berlin

전화: (+49 18 88) 6 82-0

팩스: (+49 30) 22 42 32 60

E-Mail: [poststelle@bmf.bund.de](mailto:poststelle@bmf.bund.de)

Internet: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

### 법적 근거:

- 신탁관리청 잔여과제 처리법(Gesetz zur abschließenden Erfüllung der verbleibenden Aufgaben der Treuhandanstalt vom 9. August 1994)
- 통일 특수과제청 해체법(Gesetz zur Abwicklung der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vom 28. Oktober 2003)

### 역할/과제:

통일특수과제청은 공법에 의한 연방관청으로 연방재무부의 소속기관이다. 신탁관리청에 의해 체결된 사유화계약 관리업무가 특수과제청의 업무에 속한다. 이러한 업무는 계약이행에 대한 감독, 후속 협상, 권리와 지원에 따른 법적 문제 해결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특수과제청은 사유화기업에 대해 지원의무나 계약을 수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비록 대부분의 사유화가 신탁관리청에 의해 진행되었지만, 특수과제청 스스로도 12,000여건의 사유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특수과제청은 기업의 해체도 담당하였다. 동독 국유기업에 의한 환경문제 처리를 위해 동 청은 5개의 환경관련회사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와 관련하여 5개의 신연방 주정부와 협상을 하기도 하였다.

### 조직:

특수과제청은 신탁관리청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즉 한 명의 대표자와 이사진 그리고 관리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었다. 1995년 설립 초기에는 2,333명의 직원을 가진 거대 조직이었으나 2003년 말 기준으로 5명의 관리진만 남아 있다.

2001년 1월 특수과제청은 자신의 실질적 활동을 종료하였고, 마지막 사무소를 폐쇄하였다. 현재 동 청은 청 단위의 기관으로 해체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특수과제청은 잔여과제의 처리에 있어서 책임 있는 법적·재산적 기관으로서 다양한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재정·컨설팅회사와 재건신용청의 자회사가 계약관리, 재사유화 그리고 청산과 관련된 업무를 넘겨 받았다). 현재 특수과제청은 법적 조직인 이사회와 관리위원회를 갖고 있다.

#### **성과:**

특수과제청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실질적 존속 기간동안 6억 유로의 재정 흑자를 기록하였다. 동 기간 특수과제청의 수입은 185억 유로였지만 178억 유로를 지출함으로써 흑자를 남길 수 있었다. 신탁관리청과 특수과제청의 13년에 걸친 활동이 종료되면서 1990년 당시에 430만명이 고용되어 있었던 동독 국영기업에 2003년에는 86만명만 남아 있게 되었다.

#### **간행물:**

통일특수과제청은 2003년 11월에 신탁관리청과 자신의 활동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신속한 사유화, 확고한 경영정상화, 신중한 청산 - 신탁관리청, 통일특수과제청의 13년의 회고(Schnell privatisieren, entschlossen sanieren, hehutsam szilllegen)』, Hrsg von BvS, Berlin 2003. 최종보고서의 제목은 신탁청의 청장으로 재임중 사유화 정책에 반대하는 급진주의자에 의해 살해된 D. K. Rohwedder의 어록에서 발췌하였다.

## **6. 신탁토지회사**

### **(TLG, Treuhand Liegenschaftsgesellschaft mbH)**

#### **개요:**

신탁토지회사는 신탁관리청에 의해 설립되었고 1995년에 연방 소속으로 이관되었다. 신탁토지회사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를 파악, 관리하면서 사유화시켰다. 2002년 이러한 과제는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2년 9월부터 신탁토지회사는 TLG부동산 유한회사(TLG Immobilien GmbH)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연방주에 대규모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TLG 관할 아래 부동산의 판매, 경영, 관리, 개발 및 재개발을 맡은 30개의 자회사가 활동하고 있다. 자회사들은 신연방주에만 위치하고 있다.

**설립:**

1991~

**대표:**

Volkmar von Obstfelder

Eugen von Lackum

**주소/연락처:**

Holzmarktstraße 15

10179 Berlin

Tel: (+49 30 ) 24 70 50

Fax: (+49 30 ) 24 70 73 37

E-Mail: [tlgpresse@tlg.de](mailto:tlgpresse@tlg.de)

Internet: <http://www.tlg.de>

## **7. 토지 이용 · 관리회사**

**(BVVG, Bodenverwertungs- und Verwaltungsgesellschaft mbH)**

**개요:**

토지 이용 · 관리회사(BVVG)는 신연방주에 있는 국유경작지, 목초지, 삼림을 사유화 시키는 연방의 부동산 서비스회사이다.

통일특수과제청은 토지 이용 · 관리회사의 공동출자자이기도 하다. 토지 이용 · 관리



회사는 신연방주에서 동독 국유의 농업과 삼림업에 사용되었던 토지와 건물, 그리고 사용 가능 녹지를 관리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신연방주에 12개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다.

**설립:**

1992~

**대표:**

Dr. Wilhelm Müller

**주소/연락처:**

Schnhauser Allee 120

10437 Berlin

Tel.: (+49 30) 44 32 0

Fax: (+49 30) 44 32 12 15

E-Mail: pr@bvvg.de

Internet: <http://www.bvvg.de>

**간행물:**

토지이용·관리회사, 『땅이 보인다. 연대기(Land in Sicht. Eine Chronik)』, 베를린 2002.

## 8. 베를린 지주관리회사

(BMGB, Beteiligungs-Management-Gesellschaft Berlin mbH)

**개요:**

베를린 지주관리회사(BMGB)는 신탁관리청의 후속회사로서 1995년 초 당시 사유화

되지 않은 기업을 신탁관리청으로부터 인수하여 정상화하고 구조조정업무를 추진하였다. 1997년 말 지주관리회사가 관리했던 모든 기업은 개인투자자에게 인수되었다.

**설립:**

1995~1997

**대표:**

Paul Hadrys(1995~1997)

**주소/연락처:**

지주관리회사(BEMAG, Beteiligungs-Management-Gesellschaft mbH)가 민간회사로서 잔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Berliner Straße 70

13467 Berlin

Tel.: (+49 30) 20 30 12 0

Fax: (+49 30) 20 30 12 16

E-Mail: bemag@amontis.net

Internet: <http://www.bemag.de>

기타 관련사항은 통일특수과제청 혹은 연방재무부에 문의할 수 있다.

## 9. 재건신용은행 (KfW,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개요:**

재건신용은행은 수익에 기반하지 않는 공법적인 신용기관이다. 재건신용은행은 연방과 주정부 소유의 지원은행이고 1948년에 세워졌다. 재건신용은행의 과제는 독일

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1960년대 초의 서독 재건이 완결된 이래 재건신용은행은 또한 개발원조 업무를 병행하는 은행으로서 개발도상국 지원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1991년에서 1997년까지는 신연방주 경제재건이 재건신용은행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였다.

**설립:**

1948~

**대표 이사:**

Hans W. Reich (1999~ )

Gert Vogt (1995~1999)

Gert Vogt, Richard Brantner (1992~1995)

Gerhard Gtte, Richard Brantner (1984~1992)

Gerhard Gtte, Ernst-Gnther Brder (1980~1984)

**주소/연락처:**

Palmengartenstraße 5-9

60325 Frankfurt am Main

**우편주소:**

Postfach 11 11 41

60046 Frankfurt am Main

Tel.: (+49 69) 74 31 0

Fax: (+49 69) 74 31 29 44

E-Mail: [infocenter@kfw.de](mailto:infocenter@kfw.de)

Internet: <http://www.kfw.de>

**약사:**

이미 1989/90 전환기(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에 이르는 기간을 일컬음) 동안에 재건신용은행은 동독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의 도입에 기여했다. 1990년 2월 14일 연방 정부는 재건신용은행을 통해서 동독의 기업 현대화 프

로그램을 내놓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유럽재건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m)의 특별 재정자금(Marshall-Plan의 자금)으로 운영되었다. 재건신용은행은 1990년 3월 동베를린에 동독의 소규모 기업가를 위한 상담센터를 열었다. 1990년 7월 1일 화폐 및 경제통합과 함께 재건신용은행은 동독 중소기업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두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구동독지역에서의 효과적인 금융지원체계의 구축에 기여했다. 재건신용은행은 1990년 10월 3일 통일 이후 신연방주에 투자하는 개인투자를 위한 금융기관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법적 근거:**

재건신용은행에 관한 법(1948.11. 5)

### **역할/과제:**

재건신용은행은 연방(80%)과 주정부(20%)에서 출자한 기관으로, 신용이라는 재정정책적 수단을 통해 독일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주업무로 한다.

재건신용은행은 구동독지역 재건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영역의 확대는 1991년 초 신연방주, 유럽공동체, 그리고 유럽공동체의 후원기관, 독일 청산은행(Deutsche Ausgleichsbank), 베를린 산업은행(Berliner Industriebank)의 동의에 의해 결정되었다. 업무 영역은 신연방주에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신용 프로그램과 보증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재건신용은행은 신연방주의 주요 대출기관으로 활동하였다.

### **조직:**

재건신용은행에는 1990년 약 1,000명, 1997년 약 1,500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다. 2003년 독일 청산은행(Deutsche Ausgleichsbank)과의 합병 후 약 3,800명이 베를린, 본, 프랑크푸르트에서 근무하고 있다

은행의 기관은 이사진과 감독심의위원회이다. 7명으로 이루어진 이사진은 재건신용은행의 경영과 재산관리의 의무를 갖는다.

감독심의위원회는 이사진의 경영과 재산관리를 감독하고 규모가 큰 신용보증과 연말결산을 승인한다. 별도의 상담위원회로 중소기업 위원회가 있다. 중소기업 위원회는 28명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재건신용은행이 맡은 공공과제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연방재무부 장관이 감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위원장 권한 대행자는

연방경제부 장관이다. 감독심의위원회는 연방의 장관과 상원에서 임명한 인사, 은행과 저축은행(Sparkasse)의 대표자, 그리고 산업, 지역사회, 농업, 상업, 수공업, 주택 관리, 노동 조합의 대표자로 이루어진다.

1994년 이래 재건신용은행은 신연방주의 지원정책을 위한 고문단을 두고 있다.

### 성과:

1991년 재건신용은행은 전체 지원규모의 약 3분의 2를 5개 신연방주에 지출하였다. 1990년에서 1997년까지 1,200억 마르크가 신용의 형태로 재건신용은행을 통해 신연방주에 지원되었다. 그 중 190억 마르크는 2차 세계 대전 후의 유럽재건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m)의 특별 재산(Marshall-Plan)을 이용하였다. 활동 기간 동안 재건신용은행은 700,000 건 이상의 개별 대부를 승인하였다.

재건신용은행은 신연방주를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 1998년까지 700억 마르크 규모를 재건신용은행-주거공간 현대화 프로그램(1990년 10월 연방정부에 의해 결정)으로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1997년 말까지 5개 신연방주에서 320만 가구가 현대화되었다. 이는 구동독지역 가구 숫자의 절반에 해당한다. 동 프로그램을 통해 재건신용은행청은 600,000건의 소규모 개별신용을 승인했다.
- 500억 마르크 규모의 중소기업 프로그램(250만명의 일자리를 보장하거나 창출하는데 기여하였다).
- 신연방주 지역신용 프로그램(1990년 9월 20일, 연방정부에 의해 결정): 이를 통해 재건신용은행은 환경관련 분야 즉, 폐수 및 하수도 처리, 대기오염 정화, 소음 보호, 수리시설 공사를 하였고 1991년에서 1997년까지 90억 마르크의 지원을 통해 4,000개의 프로젝트를 실현했다.
- 철수하는 소련 군대에 대한 소련내 장교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 78억 마르크(1991년 1월 16일, 독일연방공화국과 소련간 계약 체결).
- 구 동독 콤비나트에 대한 대출: 1991년 광업회사인 만스펠트 주식회사(Mansfeld AG)에 투자대출 3억 5천5백만 마르크, 1992년 EKO 철강(EKO-Stahl)에 직접대출 2억 5백만 마르크(두 기업은 신탁관리되었음); 새로운 갈탄 발전소 설치를 위해 1994년 구동독지역 에너지기업 VEAG에 5억 마르크 대출, 중부 독일갈탄 주식회사(Mitteldeutsche Braunkohle AG)에 2억 4,400만 마르크 대출 등

1993년 재건신용은행은 신연방주 주택 관련 구부채 청산을 넘겨받았다. 1994년 재

건신용은행은 구동독의 중앙은행과 합병하였고 이로서 자기 자본을 20억 마르크 증액시킬 수 있었다. 1990년대 말 구동독지역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종결되었다. 이후에는 독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구동독지역은 특별 지원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 10. 산업투자협의회 (IIC, Industrial Investment Council)

### 개요:

산업투자협의회(IIC, Industrial Investment Council)는 1997년 연방정부와 신연방주, 베를린 주정부의 참여에 의해 설립되었다. 산업투자협의회는 공공기관 및 경제부와 협력하여 구동독지역인 신연방주에 국제적인 기업(주로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투자 대상기업을 위해 신연방주의 구체적이고 경쟁력있는 장점을 발견하여 투자 과정 전반에 걸쳐 상담하고 주선하는 일을 맡고 있다: 전략 계획, 시장조사, 경쟁력 분석을 통해 입지선정, 제휴(partnership), 합작(joint venture), M&A에 있어 상담해주고 프로젝트에 맞는 자금공급, 정부의 투자장려금, 법적, 세금문제에 대한 조언을 담당한다.

### 설립:

1997~

### 원장:

Dr. Horst Dietz(2002~ )

Hans Christoph Rohr(1997~2002)

### 주소/연락처:

Friedrichstrasse 60

10117 Berlin

Tel.: (+49 30 ) 200 099 0

Fax: (+49 30 ) 200 099 111

E-Mail: info@iic.de

Internet: <http://www.iic.de>

### **역할/과제:**

산업투자협의회는 자동차 산업, 생명과학/화학, 공업기술/서비스업, 제조업 분야로 나뉘어져 있고 이들 부서는 담당 산업분야 기업과의 상담을 수행한다. 산업투자협의회는 BMW, Siemens와 같은 명망있는 기업들의 대표, 연방산업자원부 장관 (Minister for Infrastructure, Building and Housing), 신연방주 경제부 장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Supervisory Board)의 자문을 받는다. 현재는 미미한 실적 등으로 인해 해체가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 **조직:**

베를린 본사 외에 미국(워싱턴, 디트로이트, 샌프란시스코), 일본(도쿄), 프랑스(파리, 현재 철수)에 지사를 두고 있다. 산업투자협회의 상담은 모두 무료로 이루어진다.

### **성과:**

2005년 8월까지 104개 기업, 44억 유로의 직접 투자를 신연방주에 유치하여 19,100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 유치한 기업을 예로 들면 Dell, Mitsubishi/DaimlerChrysler, Oracle, eBay 등이다.

2005년 2월 GDP Global Development와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World Bank 소속)는 산업투자협의회를 세계적인 11대 투자진흥기관 중의 하나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 Ⅱ. 재산문제 처리

1. 연방 중앙행정·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BADV)
2. 주정부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LARoV)
3. 동독 당·대중조직 재산검증위원회(UKPV)



# 1. 연방 중앙행정 ·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 (BADV, Bundesanstal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 개요:

연방 중앙행정 ·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BADV)은 통일된 재산법의 시행을 보장하고 동독 시절에 몰수된 재산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처리하고 있다.

## 청장:

Horst-Dieter Kittke(2000.10~ )

Hans-Jürgen Schfer(1991~2000)

## 주소/연락처:

Mauerstraße 39-40

10117 Berlin

## 우편주소:

Postfach 305

10107 Berlin

Tel.:(+49 18 88) 70 20 - 0

Fax: (+49 18 88) 70 20 - 2 60

E-Mail: [poststelle@badv.bund.de](mailto:poststelle@badv.bund.de)

Internet: <http://www.badv.bund.de>

## 약사:

1990년 10월 26일 연방재무부는 우선적으로 미해결재산문제처리 중앙기구(ZSRoV, Zentrale Stelle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를 베를린최고재정관리국(Oberfinanzdirektion Berlin)에 설치했다. 미해결재산문제처리 중앙기구(ZSRoV)는 특히 동독에 소재한 재산의 법적 보호를 위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동 관청의 채권과 채무를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이 설립되면서 인수했다.

1991년 7월 1일 연방재무부는 연방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BARoV, Bu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을 설립하였고, 미해결재산문제처리 중앙기구는 연방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에 흡수되었다.

2006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BARoV)과 재무부의 행정서비스 분야의 업무를 통합하여 연방 중앙행정·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이 새로이 설립되었다.

#### 법적 근거:

- 1990년 9월 29일의 미해결된 재산문제 처리를 위한 법(재산법), 1990년 10월 3일에 효력 발생
- 1990년 8월 31일의 독일 연방공화국과 동독 간의 통일 조약(제 41조), 1990년 10월 3일에 효력 발생
- 1994년 9월 27일 손해배상법
- 1994년 9월 27의 보상에 관한 법

#### 역할/과제:

연방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은 연방재무부의 소속기관이며, 미해결 재산에 관한 연방의 최고관청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미해결 재산문제 처리에 관한 법, 손해배상법 그리고 점령법 혹은 점령주권에 근거를 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몰수에 관한 국가적인 보상에 관한 법의 시행
- 손해배상금 지불과 보상금 지불을 위해 마련된 손해배상 기금의 특수 재산 관리 및 경영
- 과거 국가에 의해 관리되던 재산으로 소유주 혹은 법적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재산의 이용
- 동독 재산의 법적 보호 관리기관에서 이전에 맡았던 재산문제의 해결
- 계좌 예금액의 지불과 제국 마르크(1924 -1948년까지의 독일 제국 화폐단위)로 표시된 구 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결정
- 동독 당과 대중조직이 소유했던 재산 반환, 손해배상 그리고 보상 신청에 관한 결정
- 미해결 재산문제 관련 입법을 관할하고 연방 부처를 상대로 전문가의 의견표명과 지원

- 법적 판결 개관과 공공에 대한 정보 제공
- 나치 국가사회주의 당시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보상과 미래 기금의 설치를 위해 설립된 연방재단 '과거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의 청구 검증, 예산 및 경영 검사

### 조직:

2005년 말까지 연방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BARoV)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었다:

- 위원장(영역 : 인사, 조직, 예산, 내부업무, 교육과 직무 교육, KLR, 경리, 회계감사, 재단)
- 1국(영역: 재산법에 관한 일반 문제, 사법권, 문서, 공보 업무, 전산 업무)
- 2국(영역: 국가 행정의 해체, 몰수의 취소, 당 재산과 대중조직 재산의 환원)
- 3국(영역: 손해배상 기금)

2006년 1월 1일 조직 개편 이후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과 관련한 업무는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즉 A국은 보상기금을 관리하고, C 국은 법적 보상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1993년 9월 이후 연방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은 자문단을 두고 있었다. 자문단은 각 신연방주 대표 1명, 이익단체와 해당단체의 대표 4명, 전문감정인 4명으로 구성되었다. 자문단은 재산법의 일관된 시행을 보장하고 연방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이 담당하고 있는 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 자문단의 주요 업무이다.

연방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BARoV)은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오더(Frankfurt Oder), 에어푸르트(Erfurt), 게라(Gera), 라이프치히(Leipzig), 막테부르크(Magdeburg), 노이브란덴부르크 (Neubrandenburg)에 분소를 두고 있었다.

### 성과:

주정부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의 성과 참고

연방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에는 500,000 - 700,000 건에 이르는 손해배상과 보상에 대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3년 6월 30일 기준으로 502,200 건의 청구가 접수되었는데 그중 61.3%인 308,500 건의 청구는 완료되었다. 현재까지 손해배상은 토지 30,000 건, 기업 6,000 건 그리고 금전 청구 150,000 건이 승인되었다. 6월 30일까지 손해배상 기금에서 4억 1,700만 유로가 법적 권리자들의 손해배상을 위해 지불되었다. 동 기금은 2004년부터 5차에 걸쳐 동일한 연간 분할금으로 상환된다.

**간행물:**

연방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 『미해결 재산문제(Offene Vermögensfragen) - 성과를 위한 시도(Versuch einer Bilanz)』, 베를린 2001.

연방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 『연방 미해결 재산문제 처리청 10년(10 Jahre Bu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베를린 2001.

연방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 『미해결된 재산문제 처리분야의 관계 기관 편람(Verzeichnis der Behörden für den Bereich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베를린 2003.

## **2. 주정부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

### **(LARoV, Die Landesämter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개요:**

주정부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LARoV)은 재산법의 시행을 담당한다. 이러한 업무는 1945년 - 1989년 사이 동독에서 그리고 1933년 - 1945년 사이 동독지역에서 몰수되었던 재산의 반환을 의미한다.

**주소/연락처:**

주정부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 주정부 청산청

**(La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Landesausgleichsamt)**

Adalbertstraße 50

10179 Berlin

Tel.: (+49 30) 90 20 0

Fax: (+49 30) 90 20 64 39

E-Mail: larov@berlin.de

Internet: <http://www.berlin.de/senfin/larov>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

**(La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Brandenburg)**

청장: Mr. Pelz

Magdeburger Straße 31

14770 Brandenburg

Tel.: (+49 33 81) 39 82 00

Fax: (+49 33 81) 39 82 66

E-Mail:

Internet: <http://www.brandenburg.de>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정부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

**(La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des Landes Mecklenburg-Vorpommern)**

Markt 20/21

17489 Greifswald

우편주소:

Postfach 11 25

17464 Greifswald

Tel.: (+49 38 34) 57 11 0

Fax: (+49 38 34) 57 11 65

E-Mail: [poststelle@gw.larov-mv.de](mailto:poststelle@gw.larov-mv.de)

Internet: -

**작센 주정부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

**(Sächsisches La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청장: Dr. Johannes Kimme

Olbbrichtplatz 1

01099 Dresden

우편주소:

Postfach 10 06 52

01076 Dresden

Tel.: (+49 3 51) 81 35 01

Fax: (+49 3 51) 81 35 61 02

E-Mail: poststelle@slrv.smi.sachsen.de

Internet: -

**작센-안할트 주정부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

**(La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des Landes Sachsen-Anhalt)**

청장: Dr. Rode

An der Fliederwegskaserne 13

06130 Halle (Saale)

Tel.: (+49 3 45 ) 5 14 - 0

Fax: (+49 3 45 ) 5 14 39 88

E-Mail: Lars-Hennik.Rode@lvwa.lsa-net.de

Internet: -

**튀링엔 주정부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

**(Thringer La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청장: Mr. Reinisch

Ernst-Toller-Straße 14

07545 Gera

우편주소:

Postfach 16 51

07506 Gera

Tel.: (+49 3 65 ) 823 70

Fax: (+49 3 65 ) 823 7111

E-Mail:

Internet:

**약사:**

동독 시절에 몰수된 부동산과 재산의 반환문제가 독일 통일 당시에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미 1972년 12월 21일 체결된 서독과 동독간의 기본조약에 양측이 재산문제에 있어서 각기 다른 법적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서독 총리 헬무트 콜(Helmut Kohl)과 동독 총리 한스 모드로(Hans Mordrow)는 1989년 12월 19일 드레스덴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동의 연구그룹 설립에 합의했고 이 연구그룹은 1990년 2월 21일에 설립되었다.

1990년 6월 15일 서독과 동독 정부는 미해결재산문제처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49년에서 1989년 사이에 몰수된 재산은 반환된다.(손해배상 이전 반환 원칙)
2.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을 한다.
3. 1945년과 1949년 사이 소련점령 하에 이루어진 재산 몰수는 취소되지 않는다. 대신 국가적인 보상을 시행한다.
4. 손해배상과 보상을 위해 동독의 국가 예산과는 별도의 손해배상기금을 설립한다. 이 공동성명은 나중에 결정된 몰수된 소유 재산에 관한 미해결 재산문제 처리를 위한 법(1990년 9월 29일)의 근간을 이루었다. 또한 1990년 8월 31일 통일 조약의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이로써 법치국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분단에 따라 부당하게 이루어진 조치들은 취소되었다. 이러한 몰수재산의 배상과 보상의 실시는 주정부가 담당하였다.

#### **법적 근거:**

법적인 근거는 연방 미해결 재산문제 처리청 참고

#### **역할/과제:**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은 재산법의 규정에 따라 주정부가 처리하였고 주정부 산하에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을 위해 담당기관이 만들어졌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Mecklenburg-Vorpommern)과 튀링엔 (Thüringen) 주에서는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이 각각 재무부의 소속기관이고, 작센 (Sachsen)과 작센-안할트(Sachsen Sachsen-Anhalt) 주에서는 각각 내무부의 소속기관이다. 이 외에 주정부의 책임 하에 모든 시·군·구에 미해결 재산문제 처리를 위한 지역 관청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주정부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은 소련 점령지역과 동독에서 손해배상 없이 몰수되고 동독 국유로 전환된 재산권(기업,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법적인 청구를 처리한

다. 이러한 업무는 청구에 대한 재양도, 손해배상 혹은 거부를 의미한다.

**성과:**

2004년까지 총 230만 건의 재산권 반환이 신청되었다. 2003년 9월 기준 95.6%가 처리되었다. 나머지 4.4%의 청구에 대해서는 연방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Bu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은 수 년의 처리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청구에 대한 조사작업이 기본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고 어렵기 때문이다(1933년에서 1945년 사이에 나치 독일에 의한 몰수에 대해 동독에서 거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연방주에서는 이 시기에 몰수된 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1991년 이래 주정부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의 업무 처리와 관련 부동산 혹은 다른 재산에 대한 구 소유자의 요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1,050만건의 소위 부정적 감정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 **3. 동독 당 · 대중조직 재산검증위원회**

#### **(UKPV, Die Unabhängige Kommission zur Überprüfung der Vermögen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der DDR)**

**개요:**

동독 당 · 대중조직 재산검증위원회(UKPV)의 과제는 동독의 모든 정당, 그 정당과 연관된 조직, 법인 및 동독 대중조직의 재산을 파악, 확보하는 것이다. 확보된 재산은 이전의 권리자 혹은 권리 승계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공익을 위하여 사용된다. 다만, 법치국가적인 취득이 증명된 경우에만 당과 대중조직의 권리 승계인에게 이 재산을 새로이 분배한다.

**위원장:**

Christian von Hammerstein(1998. 7~ )

Hans-Jürgen Papier(1991. 3~1998. 3)

Georg Reinicke(1990. 6~1991. 3)

**주소/연락처:**

Herr Malte Fischer

Bundesallee 216-218

10719 Berlin

Tel.: (+49 18 88) 6 81 43 67

Fax: (+49 18 88) 6 81 43 63

E-Mail: Malte.Fischer@bmi.bund.de

Internet: -

**약사:**

동독 당·대중조직 재산검증위원회는 민주적 선거를 통해 마지막으로 구성된 동독 인민의회에 의해 1990년 6월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의 설치에는 여러 동기가 있었다. 법치국가적인 판단에 따를 때, 1945년 5월 8일 - 2차 대전 항복일 - 이후 동독 당과 조직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이들 조직은 1989년 가을 전환기 이후 동독지역에서 새롭게 출발한 정당과 조직들에 비해 출발부터 이미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또한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SED)의 실권 후 동독의 정당과 대중조직이 소유한 막대한 재산이 창업 또는 유명 회사 설립 등을 통해 횡령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하였다.

동 위원회는 1990년 6월 27일 처음 소집되었다. 통일조약은 동독 정당법 제20a조 및 20b조가 계속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소유재산은 신탁관리청으로 이관되었다.

**법적 근거:**

- 1990년 5월 31일자 동독 정당법 제 20a조 및 20b조

- 1990년 8월 31일자 독일연방공화국-독일민주공화국간 통일조약, 1990년 10월 3일 발효

**역할/과제:**

동독 당·대중조직 재산검증위원회는 1990년 10월 3일 이후 법적으로 연방 내무부

의 감독을 받았지만, 업무적으로는 독립하여 활동하였다.

1990년 5월 31일 동독의 마지막 인민의회에서 의결된 정당 및 기타 정치적 결사에 관한 법률(동독 정당법) 개정을 통해 정당, 정당과 관련된 조직, 법인, 대중조직의 재산 중 1989년 10월 7일 기준 혹은 이후 대체 재산은 신탁관리로 넘겨졌다. 신탁 관리는 동독 총리에 의해 설치된 동독 당·대중조직 재산검증위원회에 위임되었다. 동 위원회는 동독 인민의회 내무위원회에 속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다.

해당 정당 및 조직(SED, CDU, LDPD, DBD, NDPD, FDGB, FDJ, 그리고 이의 정당 과 조직)은 이후 동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재산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들 당과 조직은 위원회에 종합재산보고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1989년 10 월 7일 기준 재산현황보고서도 제출해야 했다.

통일조약은 해당 재산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재산은 이전의 권리자 혹은 권리 승계인에게 반환된다.
2.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재산은 공익, 특히 신연방주의 경제구조 개편을 위하여 사용한다.
3. 법치국가적인 기본원칙(기본법)에 따른 취득이 증명된 재산에 한해 재산을 다시 당과 기타 기관에 분배한다.

#### 조직:

동독 당·대중조직 재산검증위원회는 1990년 11월 28일 연방정부가 6명의 위원을 추가함으로써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중요한 회의에는 상기 위원 외에 신탁관리청, 통일 특수과제청, 연방내무부 대표, 또 필요에 따라 타 연방부처 대표들 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업무는 1990년 11월 설치된 비서실이 수행해 왔다. 비서실은 당초 1명의 비서실장 과 6개 과로 구성되었다가 업무량 감소로 1998년까지 모두 3개 과가 해체되었다.

동독 당·대중조직 재산검증위원회는 업무추진을 위해 동독의 형사소송법 및 1990 년 10월 3일 이후부터 독일 연방공화국의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증거수집권(증인 심 문; 가택 수색과 압수)을 부여받았다.

동독 당·대중조직 재산검증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2005년 현 재 12명이 근무하고 있다.

### 성과:

동독 당·대중조직 재산검증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33억 8,400백만 마르크의 재산을 조사하여 그 중 26억 4,000만 마르크를 압류했다. 이 압류재산 가운데 9억 4500만 마르크가 사용되었으며(舊채무 6억 1900만 마르크, 신탁관리/통일 특수과제청의 행정처리비용 1억 9700만 마르크, 기타), 7억 6300만 마르크는 공익목적으로 지출되었다(문화진흥 2억 5000만 마르크, 중소기업의 자본확충을 위한 신연방주 건설화기금 2억 5000만 마르크, 연구개발지원금 1억 5000만 마르크, 기타). 잔여 재산은 9억 3200만 마르크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3년 11월 위원회는 1990년 이래 총 15억 3,500만 유로 (30억 200만 마르크)를 압류, 회수했다고 밝혔다.

### 간행물:

동독 당·대중조직 재산검증위원회는 1998년 최종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보고서를 간행했다(연방하원 인쇄물 13/1153). 동 위원회의 가장 최근 보고서는 2003년 10월 연방하원에 제출한 바 있다(연방하원 인쇄물 15/1777).



### Ⅲ. 법적 청산

1. 동독정부·통일 범죄 중앙수사처(ZERV)
2. 동독 정부범죄 태스크포스/ 검찰 2국
3. 중앙 동독범죄기록처
4. 복권재판소





# 1. 동독정부 · 통일 범죄 중앙수사처 (ZERV, Die Zentrale Ermittlungsstelle Regierungs- und Vereinigungskriminalität)

## 개요:

동독정부 · 통일 범죄 중앙수사처(ZERV)는 동독의 관료 및 공직자의 형사범죄 관련 행위(정부 범죄)를 다루고, 독일통일과 관련된 형법 위반행위(통일 범죄)를 추적하는 중앙 수사기관이었다.

## 설립:

1991. 9. 1~2000.12.31

## 처장:

Manfred Kittlaus(1991. 9. 1~1998.12.31)

Matthias Graichen(1999. 1. 1~2000.12.31)

## 주소/연락처:

동독정부 · 통일 범죄 중앙수사처는 2000년 12월 31일에 업무를 중단하였으므로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야 한다.

베를린 경찰청

주 범죄수사청(Landeskriminalamt LKA 1)

담당자: Heinz Jankowiak(동독정부 · 통일범죄 중앙수사처에서 장기 근무)

Keithstraße 30

10787 Berlin

Tel.: (+49 30) 46 64 32 70 0

Fax: (+49 30) 46 64 32 70 8

E-Mail: jankowiak@t-online.de

Internet: <http://www.berlin.de/polizei>

## 약사:

1990년 10월 3일 동독의 연방공화국 편입과 함께 연방 수사기관들이 동독 사회주의통일당(SED) 및 독일통일 관련 범죄에 대한 수백 건의 수사에 직면하게 되자 중앙 수사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베를린 시정부는 당초 중앙수사처의 베를린 설립을 반대하면서 비스바덴(Wiesbaden)에 있는 연방범죄수사청(Bundeskriminalamt)이 이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동독의 중앙집권적인 구조와 정부 기관이 수도였던 동베를린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베를린이 중앙수사처의 소재지로 최종 선정되었다. 그러나 동 중앙수사처의 설치까지는 수많은 정치적 논란과 연방하원, 연방수상, 연방 내무부와 법무부, 그리고 3주 내무장관회의의 결정이 필요했다.

## 역할/과제:

동독정부·통일 범죄 중앙수사처가 스스로 규정한 역할에 따르면, 중앙수사처는 구 동독 정부 인사에 대한 형사소추와 공직자 및 전권위원을 포함한 동독 국가 전체의 활동 중 범죄행위, 통일과정에서 자행된 특히 경제분야 범법행위를 담당한다. 정부범죄 분야에서는 베를린 장벽과 내독 국경에서의 탈주자 사살과 지뢰로 인한 사망 건에 대해 국경경비대원들과 동독 사회주의통일당(SED) 정치국 및 국가안전부 위원들을 수사했다. 또한 중앙수사처는 청부 살해와 법 악용 사례, 특히 탈출 또는 정치적 행위와 관련된 형사소송절차와 불법적인 우편물 및 전화 감시, 선거 조작, 스포츠 선수의 도핑 등을 수사했다. 시간적으로는 1989년 11월까지 자행된 범죄가 다루어졌다.

통일범죄에는 동독의 당과 대중조직의 재산 횡령, 독일 연방공화국과 동독간의 화폐통합(1990년 7월 1일 동독에 서독 마르크화 DM 도입)과 관련된 범법행위, 동독 기업 사유화시 신탁관리청에 대한 사기행각 등이 포함되었다.

## 조직:

동독정부·통일 범죄 중앙수사처는 베를린 경찰청의 독자적인 형사계 조직(소위 '제5 조직')으로 1991년 9월 1일 설치되었다. 수사지역은 전국을 포괄했으며, 재원은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가 분담하였다.

제1국(통일범죄)과 제2국(정부범죄)으로 구성된 중앙수사처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1994~1998년에는 평균 350명의 직원이 근무했으며, 설립부터 해체되기까지는 총

500명의 공무원과 200명의 경찰수사요원이 근무했다. 또 베를린 지방법원 특수검찰 2국과 긴밀한 공조관계에 있었다.

#### **성과:**

2000년 12월 베를린시 내무부에 따르면, 동독정부·통일 범죄 중앙수사처는 총 20,327 건의 수사를 진행했는데, 그 중 16,323건이 정부 범죄였다. 도핑과 관련해서는 구동독 스포츠선수 약 9,000명을 조사해 107명의 혐의를 밝혀냈다.

1998년 12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 중앙수사처의 수사결과를 근거로 총 877건이 기소되었다. 그 중 211건은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대부분 집행유예였으며 22명에 대해서는 금고형이 선고되었다.

정부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100%가 구동독 주민인 반면, 통일범죄에서 용의자는 동독과 서독 출신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동 중앙수사처는 25억 마르크 규모의 재산을 압류했다. 수사의 절반 이상이 1990년대 후반에 완료되었으며, 2000년 10월 3일부터 공소시효가 소멸되었다.

한편, 베를린 훔볼트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1990년 이래 신연방주에서 대략 총 62,000건의 수사절차가 진행되어 약 10만여 명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기소율은 약 1%에 불과했다.

## **2. 동독 정부범죄 태스크포스/ 검찰 2국**

### **(Arbeitsgruppe Regierungskriminalität, Staatsanwaltschaft II)**

#### **개요:**

동독 정부범죄 태스크포스/ 검찰 2국은 동독 관료와 공직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담당하는 베를린주의 검찰기구였다.

#### **설립:**

동독 정부범죄 태스크포스(1990.10. 3~1994. 9.30)

검찰 2국(1994.10. 1~1999. 9.30)

**국장:**

Christoph Schaeffgen(1990.10. 3~1999. 9.30)

**주소/연락처:**

베를린 고등법원(Kammergesicht)의 동독 정부범죄 태스크포스와 베를린 州지방법원(Landesgericht)의 검찰2국은 2000년 12월 31일로 업무를 종결했기 때문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하여야 한다.

베를린 검찰(Staatsanwaltschaft Berlin)

Turmstraße 91

10559 Berlin

Tel.: (+49 30) 90 14 0

Fax: (+49 30) 90 14 33 10

E-Mail:

Internet: <http://www.berlin.de/SenJust/Strafverfolgung/sta.html>

**약사:**

1990년 10월 3일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편입과 동시에 Christoph Schaeffgen 검사장의 지휘 아래 동독 정부범죄 태스크포스가 동독의 공직자, 판사, 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이 때 동독 정부범죄 태스크포스는 부분적으로 1989년 10월 Erich Honecker의 몰락 이후 통일이 되기까지 동독 검찰청이 진행해 온 수사 및 기소 자료의 도움을 받았다. 통일조약에 규정된 행위지 우선원칙 때문에 베를린 사법부가 동독 검찰청의 수사를 넘겨받아야 했다. 그러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으로 인해 독일 전역에서 검사를 지원받았으며, 이들은 2년씩 베를린으로 파견되었다.

동독 정부범죄 태스크포스는 동독 검찰청으로부터 동독 국가평의회(Staatsrat) 의장이자 독일 사회주의통일당(SED)의 서기장 Erich Honecker, 국가안전부 장관 Erich Mielke, 정치국 위원 Hermann Axen, 통상조정부(Kommerzielle Koordinierung) 대표 Alexander Schalck-Golodkowski에 대한 소송건을 넘겨받았다. 출범 초기 이미 약 300건에 이르는 수사가 진행되었다. 베를린 州지방법원의 검찰 2국은 1994년 10월에 설치되었다.

### **조직:**

동독 정부범죄 태스크포스는 베를린 고등법원 검찰에 설치되었으며, 약 80명의 직원이 근무했다. 후속기관 성격의 검찰 2국은 1994년 베를린 州지방법원에 설치되었다. 여기에는 약 200명의 검사가 근무했는데, 이들은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 때문에 연방 공화국 전역에서 대부분 2년씩 베를린으로 파견된 지원 검사들이었다. 다른 주에서도 베를린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적 질차가 이루어졌지만, 행위지 우선 원칙 때문에 베를린이 동독에 대한 법률적인 청산의 중심이 되었다. 2000년 10월 2일을 경과하면서 동독의 불법적 범죄행위 가운데 상당수가 공소시효를 상실하게 되었다.

### **성과:**

전체의 2.6%(602건)에 대해 총 1,605명이 기소되었다. 이 중 335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32건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에는 동독 사회주의통일당(SED) 정치국 위원인 Heinz Keßler, Egon Krenz, Günter Schabowski, Günther Kleiber 등이 포함되었다. 213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동독정부·통일 범죄 중앙수사처(ZERV)의 성과를 참고할 수 있다. 다만, 동독 정부 범죄 태스크포스/ 검찰 2국의 성과는 베를린에서 처리된 것만을 포함한 반면, 동독 정부·통일 범죄 중앙수사처의 경우 전국에 걸쳐 집계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3. 중앙 동독범죄기록처 (Zentrale Beweis- und Dokumentationsstelle der Landesjustizverwaltungen)**

### **개요:**

중앙 동독범죄기록처는 잘츠기터(Salzgitter)에 있던 중앙 동독인권침해기록처(Zentrale Erfassungsstelle für Menschenrechtsverletzungen in der DDR)의 후속기

관으로서 1961~1989년 사이의 사전수사절차 기록을 보존하고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정보,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설립:**

1991~

전신은 1961~1991년 Salzgitter에 소재하였던 중앙 동독인권침해기록처이다.

**소장:**

Hr. Norbert Wolf

**주소/연락처:**

Domplatz 1

38100 Braunschweig

**우편주소:**

Postfach 21 20

38011 Braunschweig

Tel.: (+49 5 31) 4 88 14 15

Fax: (+49 5 31) 4 88 14 14

E-Mail: [verwaltungspoststelle@gsta-bs.niedersachsen.de](mailto:verwaltungspoststelle@gsta-bs.niedersachsen.de)

Internet: [www.staatsanwaltschaften.niedersachsen.de](http://www.staatsanwaltschaften.niedersachsen.de)

**약사:**

1961년 8월 13일 베를린장벽이 설치된 후 동서독 국경에서 불상사가 계속 발생하였고, 동독 내에서는 탈출을 꾀하거나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폭력이 자행되었다. 이에 따라 각 州 법무장관들은 범죄자가 서독으로 들어오거나 통일을 가정할 경우에만 추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가능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중앙 동독인권침해기록처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중앙 동독인권침해기록처는 1961년 11월 24일 잘츠기터에서 업무를 개시했는데, 무엇보다 살인 또는 살인 미수(예를 들어 구동독 탈주자에 대한), 정치적 이유에 의한 부당 판결, 형행 가혹행위, 불법연행이나 정치적 박해 등 4개 카테고리의 범죄행위를 집중적으로 파악했다. 동독은 지속적으로 중앙 동독인권침해기록처의 해체를 요구했다(1980년 10월 Erich

Honecker의 Gera 요구). 잘츠기터 기록처에 상응하는 기관으로 나치 국가사회주의의 폭력범죄를 추적한 루드비히스부르크(Ludwigsburg) 소재 중앙 나치 국가사회주의 범죄 진상규명처(Zentrale Stelle der Landesjustizverwaltung zur Aufklärung von NS-Verbrechen)가 있다. 1990년 10월 3일 이후 중앙 동독인권침해기록처의 업무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서 중앙 동독범죄기록처로 바뀌었고, 1991년 Braunschweig로 이전했다.

#### **역할/과제:**

해체된 Salzgitter 소재 중앙 동독인권침해기록처의 기록문서에 의거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성과:**

중앙 동독인권침해기록처는 1961~1989년까지의 동독 내 정치적 범죄 혐의에 대한 43,000건의 사전수사절차 자료를 확보하여 제공하였다.

## **4. 복권재판소 (Rehabilitierungskammern)**

#### **개요:**

법원의 복권재판소는 1945년 5월 8일부터 1990년 10월 2일까지 소련 점령지역 및 동독의 법원에서 내려진 반법치국가적 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다. 이러한 복권은 법원 판결을 통해 가능하다. 이에 관한 절차는 당시 해당자에 대한 형사소송절차가 이루어진 지역을 관할하는 각 州지방법원이 담당한다.

#### **법적 근거:**

1999년 12월 17일자 형사복권법

**주소/연락처:**

**베를린 州지방법원(Landgericht Berlin)**

Turmstraße 91

10559 Berlin

Tel.: (+49 30) 90 14 0

Fax: (+49 30) 90 14 20 10

Internet: <http://www.berlin.de/senJust/gerichte/LG/index.html>

E-Mail:

**코트부스 州지방법원(Landgericht Cottbus)**

Gerichtsstraße 3-4

03046 Cottbus

Tel.: (+49 3 55) 6 37 10

Fax: (+49 3 55) 63 73 60

Internet: <http://www.lg-cottbus.brandenburg.de>

E-Mail: [presselgcb@lgcb.brandenburg.de](mailto:presselgcb@lgcb.brandenburg.de)

**프랑크푸르트/오더 州지방법원(Landgericht Frankfurt/Oder)**

Müllroser Chaussee 55

15236 Frankfurt/Oder

Tel.: (+49 3 35) 36 6 0

Fax: (+49 3 55) 36 63 02

Internet: <http://www.lgffo.brandenburg.de>

E-Mail: [verwlg@lgff.brandenburg.de](mailto:verwlg@lgff.brandenburg.de)

**포츠담 州지방법원(Landgericht Potsdam)**

Friedrich-Ebert-Straße 32

14469 Potsdam

Tel.: (+49 3 31) 28 86 0

Fax: (+49 3 31) 2 88 62 03



Internet: <http://www.lg-potsdam.brandenburg.de>

E-Mail: [verwlg@lgro.brandenburg.de](mailto:verwlg@lgro.brandenburg.de)

**노이브란덴부르크 州지방법원(Landgericht Neubrandenburg)**

Friedrich-Engels-Ring 15-17

17033 Neubrandenburg

Tel.: (+49 3 95) 5 44 40

Fax: (+49 3 95) 54 44 25

Internet: <http://www.mv-justiz.de/pages/ordnet-gerichte/lg-nb.htm>

E-Mail: [verwaltung@lg-neubrandenburg.mv-justiz.de](mailto:verwaltung@lg-neubrandenburg.mv-justiz.de)

**로스톡 州지방법원(Landgericht Rostock)**

August-Bebel-Straße 15-20

18055 Rostock

Tel.: (+49 3 81) 241 0

Fax: (+49 3 81) 24 13 55

Internet: <http://www.mv-justiz.de/pages/ordnet-gerichte/lg-hro.htm>

E-Mail: [verwaltung@lg-rostockmv-justiz.de](mailto:verwaltung@lg-rostockmv-justiz.de)

**슈베린 州지방법원(Landgericht Schwerin)**

Demmlerplatz 1-2

19053 Schwerin

Tel.: (+49 3 85) 74 15 0

Fax: (+49 3 85) 7 41 51 83

Internet: <http://www.mv-justiz.de/pages/ordnet-gerichte/lg-sn.htm>

E-Mail: [verwaltung@lg-schwerin.mv-justiz.de](mailto:verwaltung@lg-schwerin.mv-justiz.de)

**켄니츠 州지방법원(Landgericht Chemnitz)**

Hohe Straße 19-23

09112 Chemnitz

Tel.: (+49 3 71) 453 0

Fax: (+49 3 71) 30 21 74

Internet: <http://www.justiz.sachsen.de/smj/sites/gericht/915.htm>

E-Mail:

**드레스덴 州지방법원(Landgericht Dresden)**

Lothringer Straße 1

01069 Dresden

Tel.: (+49 3 51) 4 46 0

Fax: (+49 3 51) 4 46 40 70

Internet: <http://www.justiz.sachsen.de/gerichte/homepage/lgdd>

E-Mail: [verwaltung-lgdd@lgdd.justiz.sachsen.de](mailto:verwaltung-lgdd@lgdd.justiz.sachsen.de)

**라이프치히 州지방법원(Landgericht Leipzig)**

Harkortstraße 9

04107 Leipzig

Tel.: (+49 3 41) 21 41 0

Fax: (+49 3 41) 2 14 12 00

Internet: <http://www.justiz.sachsen.de/lgl>

E-Mail:

**막데부르크 州지방법원(Landgericht Magdeburg)**

Halberstädter Straße 8

39112 Magdeburg

Tel.: (+49 3 91) 6 06 0

Fax: (+49 3 91) 6 06 20 69

Internet:

E-Mail: [poststelle@lg-md.justiz.sachsen-anhalt.de](mailto:poststelle@lg-md.justiz.sachsen-anhalt.de)

**할레 州지방법원(Landgericht Halle)**

Hansering 13

01608 Halle

Tel.: (+49 3 45) 220 0  
Fax: (+49 3 45) 2 20 32 50  
Internet:  
E-Mail: poststelle@lg-hal.justiz.sachsen-anhalt.de

**에어푸르트 州지방법원(Landgericht Erfurt)**

Domplatz 37  
99084 Erfurt  
Tel.: (+49 3 61) 3 79 00  
Fax: (+49 3 61) 3 77 58 00  
Internet:  
E-Mail: poststelle@lgef.thueringen.de

**게라 州지방법원(Landgericht Gera)**

Rudolf-Diener-Straße 2  
07545 Gera  
Tel.: (+49 3 65) 8 34 0  
Fax: (+49 3 65) 8 34 10 00  
Internet:  
E-Mail: poststelle@lgg.thueringen.de

**마이닝엔 州지방법원(Landgericht Meiningen)**

Lindenallee 15  
98617 Meiningen  
Tel.: (+49 36 93) 509 0  
Fax: (+49 36 93) 50 92 05  
Internet:  
E-Mail: poststelle@lmgmn.tthueringen.de



## IV. 역사적 · 정치적 청산

1. 동독 국가안전부 중앙 문서관리청(BStU)
2. 연방하원 앙케이트위원회
3. 동독 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청산재단  
(Stiftung-Aufarbeitung)
4.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州) 앙케이트위원회
5. 연방하원 조사위원회



**1. 동독 국가안전부 중앙문서관리청(일명 슈타지 문서관리청)  
(BStU, Die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개요:**

동독 국가안전부 중앙문서관리청(BStU)은 동독 국가안전부(MfS 혹은 슈타지 Stasi)와 그 전신 및 후속조직의 문서를 관리하고 있다. 문서존안 원칙에 따라 동독 국가안전부의 문서를 수집·보관·정리·평가하고 관리하며, 시민과 관공서에 문서 열람을 허용한다. 그밖에 동독 국가안전부의 업무, 활동 방법을 알리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처장:**

Marianne Birthler (2000~ )  
Joachim Gauck(1990~2000)

**주소/연락처:**

Otto-Braun-Straße 70/72

10178 Berlin

우편주소:

Postfach 218

10106 Berlin

Tel.: (+49 18 88) 6 65 0 또는 030 - 2324 50

Fax: (+49 18 88) 6 65 77 99 또는 030 - 2324 7799

E-Mail: post@bstu.bund.de 또는 grundsatz@bstu.bund.de

Internet: <http://www.bstu.bund.de>

**약사:**

1989년 12월 7일 많은 동독 도시에서 시민운동가들이 문서 파기를 저지하기 위해

국가안전부의 각 지방분실을 접거했다. 베를린에 있는 국가안전부 본부도 1990년 1월 15일 시민위원회가 감독권을 인수했다. 국가안전부 본부는 시위대의 공격을 받아 부분적으로 파괴되기도 했다.

1990년 3월 31일 국가안전부 해체와 관련해 1990년 2월 내무부 지휘 하에 국가안전부 문서가 동독 각 지구 및 베를린의 보관소로 옮겨졌으며, 접근이 금지되었다. 국가안전부 정보총국(해외정보)만이 중앙원탁회의(Zentraler Runde Tisch)의 동의 아래 문서를 파기할 수 있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동독 인민의회가 1990년 8월 24일 舊국가안전부/AfNS의 개인 신상자료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그러나 서독 측의 압력으로 이 법이 통일조약에 포함되지 않자 인민의회는 1990년 8월 30일 성명을 발표하며 항의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민권운동가들이 9월 4일 국가안전부의 구(舊)문서보관소를 점거했다. 동독 인민의회는 국가안전부 문서의 존속과 추후 활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통일조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통일조약의 추가 조항을 통해 1990년 9월 8일 서독 연방하원은 인민의회법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에 상응하는 법을 제정하고 통일 후 인민의회가 지명한 특별전권위원을 연방정부를 통해 임명하는 일을 위임받았다.

1990년 10월 Joachim Gauck이 동맹 90/녹색당에 의해 '연방정부의 국가안전부 문서관리특별전권위원(청장)'으로 임명되었다. 국가안전부 잔재 처리에 관한 최종적인 규정은 1991년 12월 20일자 국가안전부 문서법에 규정되어 있다.

### **법적 근거:**

1991년 12월 20일자 舊독일민주공화국 국가안전부의 문서에 관한 법이 기본법으로 동 법은 수차례 개정되었는데, 마지막 개정은 2003년 8월 14일자 제 6차 국가안전부 문서법 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루어졌다.

### **역할/과제:**

동독 국가안전부 중앙문서관리청은 연방 내무부(BMI) 직속 관청이었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 문화미디어위임처(Geschäftsbereich der/des Beauftragten für Kultur und Medien)의 소속기관으로 변경되었다. 동독 국가안전부 중앙문서관리청은 개인의 운명에 미친 국가안전부 영향을 규명할 수 있도록 각 개인에게 국가안전부가 작성·보관한 자신의 개인신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



시에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됨으로써 당사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또 국가안전부의 행위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법적 청산을 지원하고 보장하며, 국가안전부 문서법에 명시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기도 한다.

#### **조직:**

동독 국가안전부 중앙문서관리청에는 사무총장과 부속실이 있다. 또 1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청장을 자문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8명은 연방하원이 선출하고, 9명은 연방주가 임명한다.

동독 국가안전부 중앙문서관리청 내에는 다음과 같은 국이 있다: AR 문서관리국, AU 안내국(안내 1과와 2과), BF 교육연구국, ZV 총무국.

총 직원수는 2,205명이며, 이 가운데 1,292명은 베를린 본청에서, 그리고 나머지 913명은 분소에서 근무하고 있다(2005. 6월 현황).

#### **AR국 - 문서관리**

동독 국가안전부 중앙문서관리청에 보관된 서류는 국가안전부(MfS)의 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1950년 설립 이후 1989/90년 해체될 때까지 40년 이상에 걸친 비밀정치경찰, 비밀정보기관, 그리고 형법상의 수사'기관'으로서의 국가안전부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다.

인수된 서류는 길이로 약 122,000 미터(running metres)를 상회한다. 이외에도 보관용 필름과 작업 필름의 형태로 약 46,000 미터의 자료가, 또 10,000 미터가 훨씬 넘는 서류가 파손된 종이조각으로나마 보존되어 있다.

본청의 문서보관소에는 53,600 미터 이상의 인수 서류가 보관되어 있다. 이외에도 26,700 미터의 보관용 필름과 작업 필름이 존재하고 있다. 나머지 문서는 14개 분소의 문서보관소에 분산되어 있는데, 이들 분소가 넘겨받은 문서는 총 100,000 미터가 넘는다. 국가안전부로부터 넘겨받은 것에는 문서 외에 사진, 슬라이드, 비디오, 영화, 녹음 테이프 등 수많은 시청각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 분류, 해독, 제공하는 것이 동독국가안전부 중앙문서관리청 문서관리국과 각 분소 문서관리과의 업무이다.

## AU국 - 안내

안내 1과는 시민들의 국가안전부 개인문서 열람신청서를 처리하고 국가안전부가 수집한 정보를 신청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안내 2과는 공공 및 비공공기관, 법원, 조사위원회의 문서열람 요청을 처리한다.

국가안전부 문서법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혹은 정당에게 소속 직원들의 국가안전부 연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이른바 '신원조회'(Regelanfrage)는 제공하지 않으며, 민간기업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는 간부 직원의 개인정보에 한해 열람 요청이 허용된다. 열람은 관청의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한 일괄 검사로부터 국가안전부 연루 여부를 문제삼는 것 자체를 완전 포기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복권재판소와 법원, 검찰이 가령 개인의 불법구금에 대한 배상이나 복권에 필요한 문서를 신청할 경우 사본을 제공하며, 수사기관도 예를 들어 범죄 및 위법행위의 추적과 규명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안내 2과는 또 학계, 정치교육기관, 언론의 신청서를 처리한다. 언론과 학계로부터 접수되는 신규 열람 요청은 매월 약 200건에 이른다.

## BU국 - 교육 및 연구

교육연구국은 일종의 대학외 연구기관으로서, 방법론과 현대사 및 정치학을 위한 연구프로그램을 지향하는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동독 국가안전부 중앙 문서관리청 과제에 연구기능을 포함시킨 입법부의 결정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았지만, 국가안전부에 대한 지식을 수년 만에 팔목할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연구프로젝트는 국가안전부, 국가안전부의 동독 사회주의통일당(SED) 지배체제 내 역할, 그리고 동독사회와 연방공화국 내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불가피하게 동독사(史) 일반과 전후 독일-독일사, 국제관계사 분야의 주제와 많이 중복되기도 한다.

## 도서관

도서관은 교육연구국의 일부로 일반인에도 개방된다.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동독 국가안전부 중앙문서관리청과 14개 분소에 행정업무 및 각 국별 전문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적과 법조문, 정기간행물을 공급한다. 동시에 국가안

전부 활동의 청산에 의미가 있는 주제와 관련된 간행물을 수집한다. 이를 통해 전 문학술도서관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 분소

동독 국가안전부 중앙문서관리청의 14개 분소는 동독의 쾨니히스(소위 열람소 Lesestelle)가 있는 코트부스Cottbus 제외)와 베를린(문서보관소)에 위치해 있다. 분소는 국가안전부 문서법에 규정된 동독국가안전부 중앙 문서관리청 업무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에서 활동한다.

분소는 5개 신연방주의 州동독국가안전부 문서관리청, 청산 이니셔티브, 희생자 단체, 그리고 정치교육기관과 교사연수기관 등과 협력하고 있다.

## 간행물:

동독 국가안전부 중앙문서관리청은 2년마다 업무보고서를 발간한다. 가장 최근의 2003년도 보고서는 다음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www.bstu.de/taetigkeit/sechster\\_taeftigkeitsbericht\\_2003/seiten/sechster\\_taeftigkeitsbericht\\_2003.pdf](http://www.bstu.de/taetigkeit/sechster_taeftigkeitsbericht_2003/seiten/sechster_taeftigkeitsbericht_2003.pdf), 2005년도 보고서는 [http://www.bstu.de/cln\\_042/nn\\_714240/DE/Behoerde/tactigkeitsbericht/taetigkeitsbericht\\_node.html](http://www.bstu.de/cln_042/nn_714240/DE/Behoerde/tactigkeitsbericht/taetigkeitsbericht_node.html)에서 찾을 수 있다.

다른 간행물은 교육연구국에서 발간한다.

1. 『분석 및 문서: 학술시리즈(Analysen und Dokumente: Wissenschaftliche Reihe des BStU)』, 1995년 설치된 교육연구국에서 발간, 현재까지 24권 출판.
2. 『국가안전의 해부/국가안전부 핸드북(Anatomie der Staatssicherheit/MfS-Handbuch)』, 1995년 이래.
3. 『문서자료, 시리즈 A(Dokumente, Reihe A)』
4. 『분석 및 보고, 시리즈 B(Analysen und Berichte, Reihe B)』
5. 『BF 소식지(BF informiert)』
6. 『동독 반체제 및 저항인사 전집 1권(Biografische Quellen zu Opposition und Widerstand in der DDR, Bd. 1)』, 2002.
7. 단행본

## 예산:

연도	총계	인건비	물품비	투자비
2001	102,411,000 유로	84,722,000(82.7%)	10,501,000(10.3%)	7,188,000(7%)
2002	100,138,000 유로	84,451,000(84.3%)	10,066,000(10.1%)	5,621,000(5.6%)
2003	97,822,000 유로	83,472,000(85.3%)	9,778,000(10%)	4,572,000(4.7%)
2004	93,946,000 유로	82,332,000(87.6%)	9,115,000(9.7%)	2,499,000(2.7%)

\* 2005년 예산은 총 101,743,000 유로

## 2. 연방하원 앙케이트위원회 (Die Enquete-Kommissionen des Bundestags)

### 개요:

제12대(1990~1994년) 및 제13대(1994~1998년) 연방하원은 총 6년 동안(1992~1998) 동독 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의 원인, 과정, 결과를 다룬 2개의 앙케이트위원회(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앙케이트 위원회(1992~1994년), 『SED 독재의 역사 및 결과 청산(Aufarbeitung von Geschichte und Folgen der SED-Diktatur in Deutschland)』
- 앙케이트 위원회(1995~1998년), 『독일통일과정에서 SED 독재의 결과 극복(Überwindung der Folgen der SED- Diktatur im Prozess der deutschen Einheit)』

### 위원장:

Rainer Eppelmann (1992~1998)

### 주소/연락처:

앙케이트위원회는 1998년 활동을 종료하였으므로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로 연락할 수 있다.

독일 연방하원(Deutscher Bundestag)

Platz der Republik 1  
11011 Berlin  
Tel.: (+49 30) 227 0  
Fax: (+49 30) 22 73 68 78  
E-Mail: mail@bundestag.de  
Internet: <http://www.bundestag.de>

또는

앙케이트 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Rainer Eppelmann이 이사장으로 있는 동독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앙케이트 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후속기관)에 연락할 수 있다(다음 장 참조).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 청산재단(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Rainer Eppelmann 이사장

Otto-Braun-Straße 70-72

10178 Berlin

Tel.: (+49 30) 23 24 72 00

Fax: (+49 30) 23 24 72 10

E-Mail: buero@stiftung-aufarbeitung.de

Internet: <http://www.stiftung-aufarbeitung.de>

#### 역할/과제:

연방하원은 일반적으로 소속 의원 1/4 이상이 제안할 경우 포괄적이고 중요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위해 앙케이트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독일 연방하원 운영지침 제56조). 앙케이트위원회의 위원은 원내 교섭단체들의 합의 하에 임명되는데, 각 원내 교섭단체 소속 의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앙케이트위원회는 당해 입법기간 내에 보고서 및 권고안을 연방하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차기 연방하원은 앙케이트위원회의 업무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SED 독재의 역사 및 결과 청산' 앙케이트 위원회(1992~1994년)와 '독일통일 과정에서 SED 독재의 결과 극복' 앙케이트 위원회(1995~1998년)는 동독에 대한 문서화, 분석, 평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SED 독재의 역사 및 결과 청산' 앙케이트위원회(1992~1994년)의 과제는 다음과 같았다:

1. 공산주의적 독재 세력에게 향후 어떠한 정치적 기회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전체 주의 지배구조 분석
2. 독재의 희생자들에게 역사적 정당성 부여
3. 독일의 내적 통일에 기여
4. 통일 독일 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합의 형성에 기여
5. 연방하원에 SED 독재의 결과를 제거할 방안 제시

'독일통일과정에서 SED 독재의 결과 극복' 앙케이트위원회(1995~1998년)의 업무는 전임 위원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되었다:

1. SED 독재에 대한 정치사적 분석 및 정치윤리적 평가, 사회전체적인 청산 과정 지원
2. 독일 내 민주주의에 대한 자의식, 자유로운 정의감(Rechtsempfinden), 반(反)전체 주의 컨센서스의 공고화
3. 개방성, 역사적 진실 그리고 상호 이해의 정신에서 사회의 화해에 기여
4. 정치적 대책에 대한 권고안 마련

#### 조직:

첫 번째 앙케이트위원회는 27명의 위원(연방하원 의원 16명과 외부 전문가 11명), 두 번째 앙케이트위원회는 24명의 위원(연방하원 의원 12명과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다. 앙케이트위원회의 업무는 연구진과 비서진으로 이루어진 비서실을 통해 추진되었다.

'SED 독재의 역사 및 결과 청산' 앙케이트 위원회(1992~1994년)는 320명의 증인과 전문가를 인터뷰했고 40 회의 내부 회의와 150 회의 보고서 작성그룹 미팅, 40 회의 공청회를 가졌다. '독일통일과정에서 SED 독재의 결과 극복' 앙케이트위원회(1995~1998년)도 292명의 증인과 전문가를 인터뷰했으며, 160 회의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 간행물:

앙케이트위원회가 발간한 15,378쪽(1차 보고서)과 13,570쪽(2차 보고서)의 자료(증인

인터뷰, 설문조사, 평가서, 분석자료 등)는 지금까지도 동독 역사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간행물로 남아 있다:

- 연방하원 엮음, 『‘SED 독재의 역사 및 결과 청산’ 앙케이트 위원회(제 12대 연방하원) 자료(Materialien der Enquete-Kommission ‘Aufarbeitung von Geschichte und Folgen der SED-Diktatur in Deutschland’)』, 9부 18권. Baden-Baden 1995.
- 연방하원 엮음, 『‘독일통일 과정에서 SED 독재의 결과 극복’ 앙케이트 위원회(제 13대 연방하원) 자료(Materialien der Enquete-Kommission ‘Überwindung der Folgen der SED-Diktatur im Prozess der deutschen Einheit’)』, 8부 14권. Baden-Baden 1999.

### **3. 동독 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 청산재단(청산재단) (Die 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Stiftung Aufarbeitung)**

#### **개요:**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청산재단)의 목표는 소련점령지역(SBZ) 및 동독 내 독재의 원인, 역사, 결과를 포괄적으로 청산하는 것이다. 청산재단은 SED 독재의 부당성과 희생자를 상기시키며, 사회의 반(反)전체주의적 컨센서스, 민주주의, 독일의 내적 통일을 증진하고 공고히 한다. 청산재단은 또 희생자단체의 활동과 소련 점령지역 및 동독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 **설립:**

1998~

#### **이사장:**

Rainer Eppelmann(1998~ )

### 주소/연락처:

Otto-Braun-Straße 70-72

10178 Berlin

Tel.: (+49 30) 23 24 72 00

Fax: (+49 30) 23 24 72 10

E-Mail: buero@stiftung-aufarbeitung.de

Internet: <http://www.stiftung-aufarbeitung.de>

### 약사: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 후 동독 역사의 청산문제가 집중적으로 공론화되었다. 20세기에 들어 두 번째 발생한 독일의 독재에 대한 청산은 긴급한 정치적, 역사적 도전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제12대 연방하원은 1992년 'SED 독재의 역사 및 결과 청산'을 위한 앙케이트위원회를 소집했다. 동 위원회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활동했다. 12대 연방하원이 끝난 후에도 두 번째 앙케이트위원회 '독일통일 과정에서 SED 독재의 결과 극복'을 위해 계속 활동하였다(1994~1998).

1997년 앙케이트 위원회의 보고서 작성그룹은 연방재단의 설립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연방하원에 제출했다. 즉 연방재단이 앙케이트 위원회의 업무를 계속하되, 특히 1989년 신연방주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독자적인 청산 이니셔티브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주제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자극하고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학술 연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1990년 이래 동독 국가안전부 등과 같은 기관에 대해 SED의 자산으로 SED 독재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민권운동가와 학자들의 제안이 수용되었다.

SED 독재 청산재단은 1998년 6월 5일 독일 연방하원의 결정에 의거해 설립되었고, 같은 해 11월 2일 재단 사무처가 업무를 개시했다.

### 법적 근거:

1998년 6월 5일의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 설립에 관한 법(Gesetz über die Errichtung einer 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 **역할/과제:**

청산재단은 법적 권리능력을 가진, 연방 직속의 공법상 재단이다. 재단은 연방에 의한 간접적 행정의 일부로서 활동하며, 법적 상위 감독기관은 연방내무부다.

청산재단은 SED 독재와 이에 희생되거나 저항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통일된 독일에서 일반인들의 의식 속에 계속해서 뿌리내리고자 한다. 청산재단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청산 프로젝트, 희생자단체 및 개인 문서보관소 지원
- 소련점령지역과 동독에 대한 정치적, 역사적 규명과 학술작업 지원
- 독재 희생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출판과 행사를 통한 공론화
- 수상 및 장학금 수여

2001년 3월 12일 재단운영위원회(Stiftungsrat)가 통과시킨 기본적 지원원칙에 의거해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동독 과거사 및 SED 독재 청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및 이니셔티브는 청산재단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지원요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재단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프로젝트 내용 기술 외에도 세부비용계획과 신청자 이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지원 결정은 재단 이사회가 맡는다. 1998~2002년 동안 약 1,100건 이상의 프로젝트 지원 신청서가 재단에 접수되었으며, 그 중 650건 이상이 재단의 재정지원 및 다양한 비물질적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실행되었다.

또 청산재단은 타 기관과 협력 하에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주최하며, 폭넓은 교육과정도 제공한다.

### **조직:**

청산재단을 이끄는 최고조직은 5년 임기로 선출되는 재단운영위원회(Stiftungsrat)로 운영위원회는 연방하원 의원과 연방정부 인사, 청산 문제에 특별히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인사들로 구성된다. 현재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Markus Meckel 연방하원 의원이다.

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Vorstand)는 청산재단의 실무를 관장한다. Rainer Eppelmann (전 연방하원 의원) 이사장과 Bernd Faulenbach 부이사장 외에 Erhart Neubert, Gerd Poppe와 Uwe-Bernd Lühr가 이사회에 속해 있다.

재단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이사장은 명예직이다. 청산재단 사무처는 Annette Kaminsky가 맡고 있으며, 행정 외에 3개의 업무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 **사회적 청산 1국**

사회적 청산 1국의 업무는 희생자와 기념, 매체 프로젝트와 구술사(oral history) 프로젝트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련점령지역과 동독에서의 독재를 상기시키는 기념관, 희생자 단체 및 각 이니셔티브의 접촉창구로서 SED 지배의 희생자들에 대한 상담 및 후원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또 다큐멘터리 영화, 전시회, CD-Rom, 인터넷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 프로젝트와 구술사 프로젝트도 담당한다.

### **사회적 청산 2국**

사회적 청산 2국은 정치교육과 출판에 중점을 둔다. SED 독재에 대한 정치적, 역사적 규명작업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이를 출간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정치교육을 기획하고 시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이 외에 재단 목적에 부합하는 간행물을 저술하는 저자에게는 집필부터 출판에 이르기까지 자문과 지원을 제공한다. 사회적 청산 2국은 또한 재단 자체의 간행물을 담당한다. 재단 도서관의 건립과 확충도 이 부서에서 조정하고 있다.

### **학술/국제협력국**

학술/국제협력국은 넓은 의미에서 공산주의사와 독재사 연구, 좁은 의미에서는 동독연구 관련 프로젝트 지원 및 진흥 전략을 담당한다. 여기서 중점은 후진 연구자 양성이다. 이의 목적은 SED 독재의 역사 및 극복 문제와 학계의 지속적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학술/국제협력국은 또 학술회의 참석이나 고문서자료수집 출장 등을 계획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며, 학술자문위원회와 협력하여 장학금 수여도 실시한다. 또한 국제협력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담당하며 재단문서보관소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청산재단은 이외에도 도서관과 문서보관소를 운영하고 있다.

### **간행물:**

청산재단은 이미 소련점령지역 및 동독에 대한 여러 권의 역사서를 출판한 바 있다:

- Ulrich Mählert 편저, 『동독연구 편람: 문서보관소, 연구기관, 도서관, 정치교육기관, 협회, 박물관 및 기념관 입문(Vademekum DDR-Forschung. Ein Leitfaden zu Archiven, Forschungsinstituten, Bibliotheken, Einrichtungen der politischen Bildung, Vereinen, Museen und Gedenkstätten)』, 제3판, 베를린 2002.

(재단의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음 <http://www.stiftung-aufarbeitung.de>)

- Rainer Eppelmann, Bernd Faulenbach, Ulrich Mählert 편저, 『동독연구의 성과와 전망(Bilanz und Perspektiven der DDR-Forschung)』, Paderborn 2003.

이 외에 청산재단은 정기간행물 도이칠란트 아히브(Deutschland Archiv)에 2003년 이래 매년 3차례에 걸쳐 뉴스레터 '동독연구 소식'(Neues aus der DDR-Forschung)을 실고 있다.

또한 청산재단은 소련점령지역 및 동독의 정치적 박해에 희생된 사람을 위해 제공하는 자문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책자를 보완, 발간해오고 있다:

- SED 독재 청산재단, 『소련점령지역 및 동독의 정치적 박해 희생자들을 위한 최신 상담프로그램 제공 협회·단체·이니셔티브·기관 개관(Übersicht der Vereine, Verbände, Initiativen und Institutionen mit Beratungsangeboten für Opfer politischer Verfolgung in der SBZ/DDR)』, 제 3판, 베를린 2002.

2002년 청산재단은 3년간의 재단활동을 정리한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 SED 독재 청산재단, 『활동보고서 1998-2001(Tätigkeitsbericht 1998-2001)』, 베를린 2002.
- 도서 외에 멀티미디어를 포함한 광범위한 간행물 목록을 재단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http://www.stiftung-aufarbeitung.de>).

### 예산:

단위: 마르크

연도	총수입	연방예산	이자	기타	총지출
2000	6,107,700	5,834,000	161,100	112,600	5,792,900
2001	6,590,300	6,487,000	103,300	0	6,393,300

단위: 유로

연도	총수입	연방예산	이자	기타	총지출
2002	3,816,230	3,444,350	97,500	274,380	3,816,230
2003	3,934,390	3,825,200	102,000	7,190	3,934,390

#### 4.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州) 앙케이트위원회 (Enquete-Kommission des Landtages von Mecklenburg-Vorpommern)

**개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의 '동독에서의 삶, 1989년 이후의 삶 - 청산과 화해'(Leben in der DDR, Leben nach 1989 - Aufarbeitung und Versöhnung) 앙케이트위원회는 동독 과거사와 독일통일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설립:**

1995~1997

**위원장:**

Rainer Prachtl(주의회 의장), Manfred Reißmann(주의회 수석부의장)

**주소/연락처:**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의 '동독에서의 삶, 1989년 이후의 삶 - 청산과 화해' 앙케이트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으므로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여야 한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Schloß Lennéstraße 1

19053 Schwerin

Tel.: (+49 3 85) 5 25 0

Fax: (+49 3 85) 5 25 21 41

E-Mail: [poststelle@landtag-mv.de](mailto:poststelle@landtag-mv.de)

Internet: <http://www.landtag-mv.de>

**역할/과제:**

앙케이트위원회는 동독 역사의 기술·분석·평가를 목적으로 했는데, 로스톡(Rostock), 슈베린(Schwerin), 노이브란덴부르크(Neubrandenburg) 등 구(舊)동독 북

부 3개 지구(Bezirk)에 중점을 두기도 하였다. 또한 동독 과거사와 통일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동하였다.

양케이트위원회는 1945-1989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루었다:

- 독재 희생자의 상황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州) 내 동독의 독자성 형성
- 동독의 정치 시스템
- 동독 북부 3개 지구 주민의 일상생활
- 동독의 경제 및 사회시스템
- 교육/학문/문화
- 통독 전환기의 역사

1989년 이후의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 전환기 이전과 이후의 일상생활
- 가치변화와 삶의 가치로서의 노동
- 민주주의 요구와 실제
- 1989년의 평화적 혁명 후의 엘리트 교체
- 동독인의 전기(Biographie) - 연속성과 단절

#### 조직:

양케이트위원회는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 주의회의 3개 원내 교섭단체 의원 7명(CDU 3명, SPD 2명, PDS 2명)
- 동맹 90/녹색당과 FDP 대표 각 1명(주의회 비참여 정당)
- 주의회 원내 교섭단체가 임명한 3명의 인사

양케이트위원회는 공공행사 개최, 전문평가 및 연구보고 위탁, 전문가 인터뷰 등을 수행했으며, 업무는 연구원과 비서들로 구성된 비서실을 통하여 조직되었다.

#### 간행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 양케이트위원회, 『동독에서의 삶, 1989년 이후의 삶 - 청산과 화해(Leben in der DDR, Leben nach 1989 - Aufarbeitung und Versöhnung)』, 10권, Schwerin 1998.

## 5. 연방하원 조사위원회 (Untersuchungsausschüsse des Bundstages)

### 개요:

연방하원은 제12대(1990~1994) 및 제13대(1994~1998) 입법기간 동안 3개의 조사위원회를 통해 동독 과거 및 1989년 이후 동독 경제의 전환을 다루었다. 3개 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 제12대 연방하원 제1 조사위원회 '통상조정'
- 제12대 연방하원 제2 조사위원회 '신탁관리'
- 제13대 연방하원 제2 조사위원회 '동독재산'

통상조정부(KoKo) 조사위원회는 동독에서 통상조정부와 대표 Alexander Schalck-Golodkowski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통상조정 업무분야의 수입으로부터 또는 전환기 후에도 계속해서 이득을 취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탁관리 조사위원회는 신탁관리청의 업무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위해 설치되었다. 상기 두 조사위원회가 제12대 입법기 내에 업무를 완전히 마칠 수 없었기 때문에 연방하원은 제13대에서도 그 업무를 계속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동독재산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 주소/연락처: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으므로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야 한다:

독일 연방하원(Deutscher Bundestag)

Platz der Republik 1

11011 Berlin

Tel.: (+49 30) 227 0

Fax: (+49 30) 22 73 68 78

E-Mail: mail@bundestag.de

Internet: <http://www.bundestag.de>

**간행물:**

- 『제12대 연방하원 제1 조사위원회 '통상조정' 최종보고서 - 연방하원 인쇄물 12/8595(Abschlußbericht des 1. Untersuchungsausschusses der 12. Wahlperiode. - Bundestags-Drucksache 12/8595)』
- 『제12대 연방하원 제2 조사위원회 '신탁관리' 최종보고서 - 연방하원 인쇄물 12/8404(Abschlußbericht des 2. Untersuchungsausschusses der 12. Wahlperiode. - Bundestags-Drucksache 12/8404)』
- 『제13대 연방하원 제2 조사위원회 '동독재산' 최종보고서 - 연방하원 인쇄물 13/10900(Abschlußbericht des 2. Untersuchungsausschusses der 13. Wahlperiode. - Bundestags-Drucksache 13/10900)』





## V. 정치 교육

1. 연방 정치교육센터
2. 주(州) 정치교육센터
3. 주(州) 동독국가안전부 문서관리청(LStU)
4. 정치재단



# 1. 연방정치교육센터 (BpB,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 개요: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정치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 법인(Bundesanstalt)이다. 연방 정치교육센터는 정파를 초월한 다양한 정보와 매체를 통해 정치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다가간다.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업무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민주의식을 굳건히 하며 정치적 참여의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1990년 이후 독일통일(유럽통합과 함께)은 연방정치교육센터의 핵심적인 분야였다.

## 설립:

1952~

## 청장:

Thomas Krüger(2000~ )

Günter Reichert(1992~2000)

## 주소/연락처:

Adenauerallee 86

53113 Bonn

Tel.: (+49 18 88) 5 15 0

Fax: (+49 18 88) 51 51 13

E-Mail: info@bpb.de

Internet: <http://www.bpb.de>

## 약사:

1945년 이후 서독에서 정치교육은 국가사회주의(Nazi)의 극복이었다. 한편으로는 '재교육'(re-education)을 통해 독일 사회가 정신적으로 탈나치화되고 민주주의로 거듭 나야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교육이 국가사회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독일통일과 함께 정치교육은 독일에 두 개의 정치 문화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1990년 이후 구동독 지역에서는 서독 정당과 기관에 대한 정치적 괴리감이 만연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정치교육은 서독과 동독주민들의 공통된 국민적 정체성 정립을 과제로 삼았다. 내적 통일이라는 키워드가 전면에서 부각되었다. 공산주의 독재청산을 통해 민주주의적 기본가치와 규칙을 정착시켜야 했다. 이러한 과제를 억누르거나 묵살함으로써 1945년 이후에 발생한 것과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법적 근거:**

연방정치교육센터에 관한 지침

### **역할/과제:**

연방정치교육센터는 법적 권리능력이 없는 연방내무부 산하의 연방 영조물법인이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 다양한 정치교육 대책을 통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민주주의식을 공고히 하며 정치적 참여의지를 강화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제3제국(나치)과 동독이라는 두 번에 걸친 독재 경험으로부터 연방정치교육센터는 민주주의, 관용, 다원주의에 기초한 정치적 의식의 발전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받았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 1990년 이후 특히 독일통일과 동독 역사라는 주제에 집중했다. 특히 이 주제에 2개의 중점, 즉 한편으로는 구(舊)동독지역에 자유민주주의와의 동일성을 강화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신연방주의 발전과정에 대한 서독 지역의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전념했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 각종 행사, 인쇄물, 시청각 자료, 인터넷 제작물을 통해 시사문제와 역사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센터가 개최하는 행사에는 컨퍼런스, 페스티벌, 박람회, 전시회, 연수여행, 경진대회, 세미나, 문화행사, 이벤트, 기자 연수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렇게 폭넓은 연방정치교육센터의 교육프로그램과 자료는 시민들에게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정치적 삶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위한 능력을 함양하고 있다. 독일에게는 독재적 지배형태에 대한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민주주의, 다원주의, 관용과 같은 가치를 국민의 의식 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도록 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 연방정치교육센터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자료는 정치·문화·사회·경제적 과정의

역사적, 사회적 연관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이 외에도 독일에서 정치교육에 관여하는 각종 공인 교육기관과 재단, 비정부조직의 행사도 지원한다.

연방정치교육센터와 주(州)정치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자료는 특히 초정파성과 의견의 다양성을 담고 있다. 정치권이나 학계 또는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는 논란 그대로 서술된다는 것이다. 또한 교수법에 적합하게 준비되며, 교육자와 학습자 모두를 위해 자료를 제공한다. 텍스트, 온라인 간행물, 수업 자료, 안내목록, 링크 리스트, 프로젝트, 원격학습 자료 등 정치교육과 관련된 제반 자료는 해설을 덧붙이고 알기 쉽게 일목요연한 형태로 제공된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 교사들과 교육 및 청소년사업 종사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과 자료도 제공한다. 또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는 연령에 맞는 주제와 매체를 제공하며, 스포츠단체나 연방군 또는 경찰에 소속된 젊은이들을 위한 특별패키지와 연수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 미디어 시대를 맞아 연방정치교육센터는 현대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적극 수용해 개별 매체를 넘나드는 종합미디어적 접근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최신의 사회적, 정치적 사건과 논란에 대해서도 신속한 교육프로그램과 특별 인터넷 제작물을 통해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빠르고 확실한 정보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결국 관심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연방정치교육센터에서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002년 이래 연방정치교육센터는 독일통일의 날인 10월 3일 통일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독일통일 시민상'(Bürgerpreis zur Deutschen Einheit)을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수여하고 있다(1카테고리: 통일의 긴밀화, 2카테고리: 통일의 형성, 3카테고리: 통일의 다양성). 각 시민상에 대해 10,000 유로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 상의 수상자는 연방 대통령이다.

#### 조직:

연방내무부가 임명한 소장이 연방정치교육센터를 이끈다. 또한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연방 내무장관이 4년 임기로 지명하는 최대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학술자문위원회로부터 정치교육과 관련된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 자문을 받는다.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정치적 균형과 업무의 정치적 효과에 대해서는 22명의 연방하원 의원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Kuratorium)가 통제한다.

### **간행물:**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수많은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발간을 통해 독일통일이라는 주제를 다루어왔다. 특히 통일에 대한 권위 있는 기본 교과서를 출간하였다.

Werner Weidenfeld/Karl-Rudolf Korte 편, 『독일통일 핸드북 1949-1989-1999(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1949-1989-1999)』, 확대개정판. Bonn 1999.

## **2. 주(州) 정치교육센터 (Die Landeszentralen für politische Bildung)**

신연방주에 소개한 주(州) 정치교육센터는 연방정치교육센터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단, 연방의 책임이 아닌 각 주정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또한 주(州) 정치교육센터는 각 주의 동독시절 지역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신연방주의 정치교육센터는 다음과 같다.

### **베를린 주(州) 정치교육센터**

**(Die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sarbeit Berlin)**

#### **소장:**

Ruth Ellerbrock

#### **주소/연락처:**

An der Urania 4-10

10787 Berlin

Tel.:(+49 30) 90 16 25 52

Fax: (+49 30) 90 16 25 38

E-Mail: [landeszentrale@senbjs.verwalt-berlin.de](mailto:landeszentrale@senbjs.verwalt-berlin.de)

Internet: <http://www.berlin.de/rbm-skzl/LandPol/start.html>

**브란덴부르크 주(州) 정치교육센터**

**(Brandenburgische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소장:**

Martina Weyrauch

**주소/연락처:**

Heinrich-Mann-Allee 107

14473 Potsdam

Tel.: (+49 3 31) 8 66 35 41

Fax: (+49 3 31) 8 66 35 44

E-Mail: blzpb@mbjs.brandenburg.de

Internet: <http://www.politische-bildung-brandenburg.de>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州) 정치교육센터**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Mecklenburg-Vorpommern)**

**소장:**

Regine Marquardt

**주소/연락처:**

Jägerweg 2

19053 Schwerin

Tel.: (+49 3 85) 30 20 90

Fax: (+49 3 85) 3 02 09 22

E-Mail: lpbmvt@t-online.de

Internet: <http://www.mv-regierung.de/lpb/folgeindex.htm>

**작센 주(州) 정치교육센터**

**(Sächsische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소장:**

Wolf-Dieter Legall

**주소/연락처:**

Schützenhofstraße 36

01129 Dresden

Tel.: (+49 3 51) 85 31 80  
Fax: (+49 3 51) 8 53 18 55  
E-Mail: info@slpb.smk.sachsen.de  
Internet: <http://www.slpb.de>

**작센-안할트 주(州) 정치교육센터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Sachsen-Anhalt)**

**소장:**

Bernd Lüdke-meier

**주소/연락처:**

Schleiufer 12

39104 Magdeburg

Tel.: (+49 3 91) 56 53 40

Fax: (+49 3 91) 5 65 34 13

E-Mail: sekretariat@lpb.stk.sachsen-anhalt.de

Internet: <http://www.sachsen-anhalt.de/LPSA/>

**튀링엔 주(州) 정치교육센터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Freistaat Thüringen)**

**소장:**

Franz Josef Schlichtung

**주소/연락처:**

Regierungsstraße 73

99084 Erfurt

Postfach 10 21 51

99021 Erfurt

Tel.: (+49 3 61) 3 79 27 01

Fax: (+49 3 61) 3 79 27 02

E-Mail: lzt@thueringen.de

Internet: <http://www.thueringen.de/LTZ/index.html>



### 3. 주(州) 동독국가안전부 문서관리청 (LStU, Die La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개요:

베를린과 신연방주(브란덴부르크를 제외한)에는 주(州) 동독국가안전부 문서관리청(LStU)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동독국가안전부 중앙 문서관리청(BStU) 산하에 속하지 않으며, 다만 문서 이용시 각 주별 특수성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지원할 뿐이다. 주(州) 동독국가안전부 문서관리청은 이 밖에 구(舊)국가안전부의 활동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나타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시민, 행정당국 및 기타 기관의 접촉창구다.

주(州) 동독국가안전부 문서관리청이 주(州) 산하 관청이기 때문에 이들의 업무는 각 주의 법률에 따라 정의된다. 따라서 명칭 및 주(州) 소관사항 등은 각기 약간의 차이가 있다. 자문 업무와 함께 주(州) 동독국가안전부 문서관리청은 타 교육기관과 협회, 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하여 동독사(史)와 그 역사적, 정치적 청산 문제에 대한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며 학교 수업과 교사 및 관심 있는 이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주(州) 동독국가안전부 문서관리청은 대부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동독과 동독국가안전부 관련 주제를 다루는 프로젝트와 연구계획을 지원하는 한편 동시에 독자적인 연구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각각의 주(州) 동독국가안전부 문서관리청은 연구 시리즈나 단행본을 발간하고 있으며, 매년 또는 격년으로 활동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5개의 주(州) 동독 국가안전부 문서관리청은 다음과 같다:

#### 베를린 주(州) 동독국가안전부 문서관리청 (Der Berliner La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DR)

#### 설립:

1992~

칭장:

Martin Gutzeit

주소/연락처:

Scharrenstraße 17

10178 Berlin

Tel.: (49 30) 24 07 92 0

Fax: (49 30) 24 07 92 99

E-Mail: LStU-Berlin@t-online.de

Internet: <http://www.stasi-landesbeauftragter-berlin.de/>

작센 주(州) 동독국가안전부 문서관리청

**(Der Schäsische La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

설립:

1993~

칭장:

Michael Beleites

주소/연락처:

Unterer Kreuzweg 1

01097 Dresden

Tel.: (+49 3 51) 6 56 81 40

Fax: (+49 3 51) 6 56 81 20

E-Mail: [info@lstu.smj.sachsen.de](mailto:info@lstu.smj.sachsen.de)

Internet: <http://www.lstu-sachsen.de/>

튀링엔 주(州) 동독국가안전부 문서관리청

**(Die Landesbeauftragte des Freistaates Thüring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

설립:

1993~

**청장:**

Hildigund Neubert

**주소/연락처:**

Jürgen-Fuchs-Straße 1

99096 Erfurt

Tel.: (+49 3 61) 3 77 19 51

Fax: (+49 3 61) 3 77 19 52

E-Mail: TLStU@t-online.de

Internet: <http://www.thueringen.de/TLStU>

**작센-안할트 주(州) 동독국가안전부 문서관리청**

**(Die La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s Landes Sachsen-Anhalt)**

**설립:**

1994~

**청장:**

Gerhard Ruden

**주소/연락처:**

Klewitzstraße 4

39112 Magdeburg

Tel.: (+49 3 91) 5 67 50 51

Fax: (+49 3 91) 5 67 50 60

E-Mail: [info@landesbeauftragte.de](mailto:info@landesbeauftragte.de)

Internet: <http://www.landesbeauftragte.de>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州) 동독국가안전부 문서관리청**

**(Der Landesbeauftragte für Mecklenburg-Vorpommer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

**설립:**

1993~

청장:

Jörn Mothes

주소/연락처:

Jägerweg 2

19053 Schwerin

Tel.: (+49 3 85) 73 40 06

Tel.: (+49 3 85) 73 40 07

E-Mail: LSTU-MV@t-online.de

Internet: <http://www.mvnet.de/landesbeauftragter>

#### 4. 정치재단 (Die politischen Stiftungen)

개요:

독일 정치재단의 과제는 독일 내 정치·사회교육을 증진하고 민주주의적 가치이념을 전달하며 국제적인 상호이해와 파트너십에 적극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학문, 예술, 문화를 진흥함과 동시에 장학금 수여를 통해 국내외의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1971년 이래 정치재단은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통일 이후에는 신연방주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정치재단은 해당 정당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으며, 업무의 중점과 방향도 각 정당의 정치적 이념으로부터 도출된다. 물론 정치재단에게는 그들이 제공하는 것을 모든 시민에게 열어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독일의 정치재단으로는 연방하원에 진출해 있는 6개의 정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사민당 SPD),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기민당 CDU), 한스 자이텔 재단(기사당 CSU),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자민당 FDP), 하인리히 뵐 재단(동맹 90/녹색당 Bündnis 90/Grüne),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민사당 PDS) 등 6개 재단이 있다.

#### 4.1.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Friedrich-Ebert-Stiftung e.V.)

**이사장:**

Anke Fuchs

**설립:**

1925~

**주소/연락처:**

Godesberger Allee 149

D-53175 Bonn

Tel.: (+49 2 28) 8 83 0

Fax: (+49 2 28) 88 33 96

E-Mail: [presse@fes.de](mailto:presse@fes.de)

Internet: <http://www.fes.de>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구(舊)동독지역 주 및 베를린에 대한 정치교육 업무는 '구동독지역 대화국'(Abteilung Dialog Ostdeutschland)이 담당한다. 이 국에는 2개의 포럼이 있다(정치·사회 포럼, 베를린 포럼). 이 외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신연방주와 베를린에 주 사무소 혹은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다.

**정치·사회 포럼(Forum Politik und Gesellschaft)**

Hiroshimastraße 17

10785 Berlin

Tel.: (+49 30) 26 93 58 31

Fax: (+49 30) 26 93 58 58

E-Mail: [glasnecg@fes.de](mailto:glasnecg@fes.de)

Internet: <http://www.fes.de/forumpug>

**베를린 포럼(Forum Berlin)**

Hiroshimastraße 17

10785 Berlin

Tel.: (+49 30) 26 93 58 6

Fax: (+49 30) 26 93 58 57

E-Mail: [forumberlin@fes.de](mailto:forumberlin@fes.de)

Internet: <http://www.fes.de/fes-forum>

**베를린 주 사무소(Landesbüro Berlin)**

Hiroshimastraße 17

10785 Berlin

Tel.: (+49 30) 26 93 58 35

Fax: (+49 30) 26 93 58 59

E-Mail: [lbbmail@fes.se](mailto:lbbmail@fes.se)

Internet: <http://www.fes.de/Berlin>

**브란덴부르크 주 사무소(Landesbüro Brandenburg)**

Hermann-Elflein-Straße 30/31

14467 Potsdam

Tel.: (+49 3 31) 29 25 55

Fax: (+49 3 31) 28 03 35 6

E-Mail: [potsdam@fes.de](mailto:potsdam@fes.de)

Internet: <http://www.fes.de/Potsdam>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 사무소(Landesbüro Mecklenburg-Vorpommern)**

Arsenalstraße 8 (Haus der Kultur)

19053 Schwerin

Tel.: (+49 3 85) 51 25 96

Fax: (+49 3 85) 51 25 95

E-Mail: [Erik.Gurgsdies@@fes.se](mailto:Erik.Gurgsdies@@fes.se)

Internet: <http://www.fes.de/Schwerin>

**작센-안할트 주 사무소(Landesbüro Sachsen-Anhalt)**

Otto-von-Guericke-Straße 56

39104 Magdeburg

Tel.: (+49 3 91) 5 68 76 0

Fax: (+49 3 91) 5 68 76 15

E-Mail: info.magdeburg@fes.se

Internet: <http://www.fes.de/Magdeburg>

**튀링엔 주 사무소(Landesbüro Thüringen)**

Nonnengasse 11

99084 Erfurt

Tel.: (+49 3 61) 59 80 2 0

Fax: (+49 3 61) 5 98 02 10

E-Mail: ERFMail@fes.de 또는 infoerfurt@fes.de

Internet: <http://www.thueringen.de>

**드레스덴 사무소(Büro Dresden)**

Königstraße 6

01097 Dresden

Tel.: (+49 3 51) 80 46 80 3

Fax: (+49 3 51) 80 46 80 5

E-Mail: DRNmail@fes.de

Internet: <http://www.fes.de/Dresden>

**라이프치히 사무소(Büro Leipzig)**

Burgstraße 25

04109 Leipzig

Tel.: (+49 3 41) 9 60 21 60

Fax: (+49 3 41) 9 60 50 91

E-Mail: lpzmail@fes.de

Internet: <http://www.fes.de/Leipzig>

**켄니츠 사무소(Büro Chemnitz)**

Bahnhofstraße 24

09111 Chemnitz

Tel.: (+49 3 71) 67 59 47

Fax: (+49 3 71) 67 59 49

E-Mail: info.chemnitz@fes.de

Internet: <http://www.fes.de/Chemnitz>

**4.2.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Konrad-Adenauer-Stiftung e. V.)**

**이사장:**

Bernhard Vogel

**설립:**

1964~

**주소/연락처:**

Rathausallee 12

53757 Sankt Augustin

Tel.: (+49 22 41) 2 46 0

Fax: (+49 22 41) 24 65 91

E-Mail: zentrale@kas.de

Internet: <http://www.kas.de>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5개 신연방주에 교육관을 그리고 베를린에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아카데미(Akademie der Konrad-Adenauer-Stiftung)**

Tiergartenstraße 35



10785 Berlin

Tel.: (+49 30) 2 69 96 0

Fax: (+49 30) 2 6 99 6 32 17

E-Mail: zentrale-berlin@kas.de

Internet: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포츠담 교육관**

**(Konrad-Adenauer-Stiftung e. V. Bildungswerk Potsdam)**

Rudolf-Breitscheid-Straße 64

14482 Potsdam-Babelsberg

Tel.: (+49 3 31) 7 48 87 60

Fax: (+49 3 31) 74 88 76 15

E-Mail: kas-potsdam@kas.de

Internet: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슈베린 교육관**

**(Bildungswerk Schwerin der Konrad-Adenauer-Stiftung e.V.)**

Arsenalstraße 10

19053 Schwerin

Tel.: (+49 385) 555 705 0

Fax: (+49 385) 55 57 05 9

E-Mail: kas-schwerin@kas.de

Internet: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슬로스 벤트그라벤 교육센터**

**(Konrad-Adenauer-Stiftung e. V. Bildungszentrum Schloß Wendgräben)**

Wendräbener Chaussee 1

39279 Wendgräben

Tel.: (+49 3 92 45) 95 23 51

Fax: (+49 3 92 45) 95 23 66

E-Mail: zentrale-wendgraeben@kas.de

Internet: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드레스덴 교육관**  
**(Konrad-Adenauer-Stiftung e. V. Bildungswerk Dresden)**

Königstraße 23

01097 Dresden

Tel.: (+49 351) 5 63 44 60

Fax: (+49 351) 5 63 44 610

E-Mail: kas-dresden@kas.de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에어푸르트 교육관**  
**(Konrad-Adenauer-Stiftung e. V. Bildungswerk Erfurt)**

Thomas-Müntzer-Straße 21a

99084 Erfurt

Tel.: (+49 3 61) 6 54 91 0

Fax: (+49 3 61) 6 54 91 11

E-Mail: kas-erfurt@kas.de

#### **4.3. 한스 자이델 재단** **(Hanns-Seidel-Stiftung e.V)**

**이사장:**

Alfred Bayer

**설립:**

1967~

**주소/연락처:**

Lazarettstraße 33

80636 München

E-Mail: info@hss.de

Internet: <http://www.hanns-seidel-stiftung.de> 또는 [www.hss.de](http://www.hss.de)

Tel.: (+49 89) 12 58 0

Fax: (+49 89) 1 25 83 56

한스 자이델 재단은 베를린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다.

#### **한스 자이델 재단 베를린 연락사무소**

**(Hanns-Seidel-Stiftung Verbindungsstelle Berlin)**

Bruno-Möhring-Straße 3

12277 Berlin

Tel.:(+49 30) 7 22 40 13

Fax: (+49 30) 72 32 00 22

E-Mail: berlin@hss.de

Internet:-

#### **4.4.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Friedrich-Naumann-Stiftung)**

**이사장:**

Otto Graf Lambsdorff

**설립:**

1958~

**주소/연락처:**

Karl-Marx-Straße 2

14482 Potsdam

Tel.: (+49 3 31) 7019 0

Fax: (+49 3 31) 7 01 91 88

E-Mail: [fnst@fnst.org](mailto:fnst@fnst.org)

Internet: <http://www.fnst.de>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할레에 신연방주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사무소/수도 사무소  
(Büro Berlin-Brandenburg/Hauptstadtbüro)**

Reinhardstraße 14-16

10117 Berlin

Tel.: (+49 30) 2 88 77 81 42

Fax: (+49 30) 2 88 77 84 9

E-Mail: [buero.berlin-brandenburg@fnst.org](mailto:buero.berlin-brandenburg@fnst.org)

Internet: <http://www.berlin-brandenburg.fnst.de>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사무소(Büro Berlin-Brandenburg)**

Karl-Marx-Straße 2

14482 Potsdam

Tel.: (+49 3 31) 7 01 91 94

Fax: (+49 3 31) 7 01 91 98

E-Mail: [buero.berlin-brandenburg@fnst.org](mailto:buero.berlin-brandenburg@fnst.org)

**할레 지역사무소(Regionalbüro Halle)**

Charlottenstraße 7

06108 Halle

Tel.: (+49 3 45) 6 86 96 0

Fax: (+49 3 45) 6 86 96 13

E-Mail: [fnst.halle@fnst.org](mailto:fnst.halle@fnst.org)

4.5. 하인리히 뵐 재단  
(Heinrich-Böll-Stiftung)

이사장:

Ralf Fücks, Annette Maennel

설립:

1996~

주소/연락처:

Rosenthaler Straße 40/41

10178 Berlin

Tel.: (+49 30) 2 85 34 - 0

Fax: (+49 30) 28 53 41 09

E-Mail: info@boell.de

Internet: <http://www.boell.de>

하인리히 뵐 재단은 모든 신연방주와 베를린에 주(州)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하인리히 뵐 재단 베를린 교육관

(Bildungswerk Berlin der Heinrich-Böll-Stiftung)

Kottbusser Damm 72

10967 Berlin

Tel.: (+49 30) 6 12 60 74

Fax: (+49 30) 6 18 30 11

E-Mail: info@bildungswerk-boell.de

Internet: <http://bildungswerk-boell.de>

하인리히 뵐 재단 브란덴부르크 지부(Heinrich-Böll-Stiftung Brandenburg)

Charlottenstraße 30

14467 Potsdam

Tel.: (+49 3 31) 2 80 07 86  
Fax: (+49 3 31) 29 20 92  
E-mail: info@boell-brandenburg.de  
Internet: <http://www.boell-brandenburg.de>

**하인리히 뵐 재단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교육관**  
**(Bildungswerk Mecklenburg-Vorpommern in der Heinrich-Böll-Stiftung)**  
Mühlenstraße9  
18055 Rostock  
Tel.: (+49 3 81) 4 92 21 84  
Fax: (+49 3 81) 4 92 21 56  
E-Mail: post@boell-mv.de  
Internet: <http://www.boell-mv.de>

**하인리히 뵐 재단 작센-안할트 교육관(Heinrich-Böll-Stiftung Sachsen-Anhalt)**  
Leipziger Straße 36  
06108 Halle (Saale)  
Tel.: (+49 3 45) 2 02 39 27  
Fax: (+49 3 45) 2 02 39 28  
E-Mail: info@boell-sachsen-anhalt.de  
Internet: <http://www.boell-sachsen-anhalt.de>

**하인리히 뵐 재단 튀링엔 교육관(Heinrich-Böll-Stiftung Thüringen)**  
Trommsdorfstraße 5  
99084 Erfurt  
Tel.: (+49 3 61) 5 55 32 55  
Fax: (+49 3 61) 5 55 32 53  
E-Mail: info@boell-thueringen.de  
Internet: <http://www.boell-thueringen.de>

하인리히 뵐 재단 바이터덴켄 교육관  
(Bildungswerk Weiterdenken in der Heinrich-Böll-Stiftung)

Schützengasse 18

01067 Dresden

Tel.: (+49 3 51) 4 94 33 11

Fax: (+49 3 51) 4 94 33 11

E-Mail: info@weiterdenken.de

Internet: <http://www.weiterdenken.de>

4.6. 로자 룩셈부르크 사회분석 및 정치교육 재단

(Rosa-Luxemburg-Stiftung Gesellschaftsanalyse und politische Bildung e. V.)

이사장:

Evelin Wittich

설립:

1996~

주소/연락처:

Franz-Mehring Platz 1

10243 Berlin

Tel.: (+49 30) 44 31 02 21 / 44 31 00

Fax: (+49 30) 44 31 02 22

E-Mail: [wittich@rosalux.de](mailto:wittich@rosalux.de)

Internet: <http://www.rosalux.de>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은 5개의 신연방주 전체와 베를린에 주(州)재단을 두고 있다. 동독 사회주의통일당(SED)의 후신인 민사당(PDS)의 재단으로서 1999년부터 다른 정치재단과 같이 연방예산의 지원을 받고 있다.

**‘헬레 판케’ 정치·교육·문화 진흥협회**

**(‘Helle Panke’ zur Förderung von Politik, Bildung und Kultur e. V.)**

Kopenhagener Straße 76

10437 Berlin

Tel.: (+49 30) 47 53 87 24

Fax: (+49 30) 47 53 87 75

E-Mail: info@helle-panke.de\_

Internet: <http://www.helle-panke.de>

**브란덴부르크주(州)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

**(Rosa-Luxemburg-Stiftung-Brandenburg e. V.)**

Dortustraße 53

14467 Potsdam

Tel.: (+49 3 31) 8 17 04 32

Fax: (+49 3 31) 8 17 04 33

Internet: <http://www.bbg.rls.de>

E-Mail: LuxemBBG@t-online.de

**정치교육 및 다문화교육 포럼**

**(Forum für politische und interkulturelle Bildung e. V.)**

Augustenstraße 78

18055 Rostock

Tel.: (+49 3 81) 4 90 04 50

Fax: (+49 3 81) 4 90 04 51

E-Mail: mv@rosalux.de

Internet: <http://www.forum-pib.de>

**작센주(州)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

**(Rosa-Luxemburg-Stiftung Sachsen e. V.)**

Harkortstraße 10

04107 Leipzig



Tel.: (+49 3 41) 9 60 85 31

Fax: +49-341-2125877

E-Mail: RosaLuxemburg-Stiftung.Sachsen@t-online.de

Internet: <http://www.rosa-luxemburg-stiftung-sachsen.de>

**작센-안할트주(州) 문화 · 학술 · 정치교육 진흥협회**

**(Verein zur Förderung von Kultur, Wissenschaft und politischer Bildung in Sachsen-Anhalt)**

Ebendorfer Straße 3

39108 Magdeburg

Tel.: (+49 391) 7 32 49 80

Fax: (+49 391) 7 32 49 85

E-Mail: [Bildungsverein.elbe-saale@t-online.de](mailto:Bildungsverein.elbe-saale@t-online.de)

Internet: <http://www.bildungsverein-elbe-saale.de>

**튀링엔 교육 · 학술포럼**

**(Thüringer For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e. V.)**

Käthe-Kollwitz-Straße 6

07643 Jena

Tel.: (+49 36 41) 44 94 32

Fax: (+49 36 41) 42 65 53

E-Mail: [vorstand@rosa-luxemburg-stiftung-thueringen.de](mailto:vorstand@rosa-luxemburg-stiftung-thueringen.de)

Internet: <http://www.rosa-luxemburg-stiftung-thueringen.de>



## VI. 연구 기관

1.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연구소
2. 뮌헨현대사연구소 베를린분소
3. 동독 사회주의통일당(SED)-국가 공동연구그룹
4. 포츠담 현대사연구소
5. 군사(軍史)연구청
6. 할레 경제연구소
7. 응용정치연구센터



**1.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연구소**  
**(Hannah-Ahrendt-Institut für Totalitarismusforschung e.V.**  
**an der Technischen Universität Dresden)**

**개요:**

드레스덴 공대에 있는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연구소는 독일의 양대 독재(국가사회주의와 동독 공산주의)를 비교 연구한다.

**설립:**

1995~

**소장:**

Gerhard Besier(2003. 4~ )

**주소/연락처:**

Helmholtzstraße 6-8

01069 Dresden

우편주소:

01062 Dresden

Tel.: (+49 3 51) 46 33 28 02

Fax: (+49 3 51) 46 33 60 79

E-Mail: [hait@rcs.urz.tu-dresden.de](mailto:hait@rcs.urz.tu-dresden.de)

Internet: <http://www.hait.tu-dresden.de>

**약사:**

드레스덴 공대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연구소 설립 구상은 거의 60년에 걸친 구동독 지역에서의 양대 독재 경험과 1989/90년의 평화 혁명에 대한 분석 필요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독일통일과 자유 작센주(州) 건립 직후 주(州)의회는 연구소 설립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1993년에야 본격화할 수 있었다. 연구소 명칭은 전체주의적

권력을 가진 독재가 모든 정치적인 것의 본질을 완전히 파괴시킨다는 것을 가장 설득력 있게 보여준 독일계 미국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를 기념해 붙여진 것이다.

### 목표/과제:

연구소의 과제는 드레스덴 공대와 협력 하에 사학자들과 사회과학자들의 학제적 연구를 통해 국가사회주의(NS) 나치독재와 동독 사회주의통일당(SED) 정권의 정치·사회구조 및 이들이 독일통일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전체주의 체제와 구조, 폭력지배에 대한 각종 저항운동과 그룹, 정당, 조직 및 개인의 저항활동에 중점을 둔 현대사 연구와 문헌화 작업을 수행하며 연구 결과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 및 현대사 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가적 입장을 제시하거나 전체주의적 구조의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하며, 나치 독재와 SED 정권의 희생자에 대한 추모 노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학술연구를 통해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연구소의 과제다.

한나 아렌트 연구소는 이론화를 염두에 두면서 실증적 독재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공산주의와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세계관으로서 공산주의와 국가사회주의 독재는 20세기에 결정적인 각인을 남겼고, 그 결과는 현재와 미래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20세기 현상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억압적 요소뿐만 아니라 독재,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 사이의 복잡한 관계구조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전체주의 지배의 개념화'가 연구의 기초가 된다. 또한 연구소는 여타 국가사회주의 시스템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SED 독재 연구를 보완하고 있다. 여기서 중점은 연이은 양대 독재 시기의 작센주(州) 역사에 대한 서술과 1989/90년 평화 혁명기의 자유 작센주(州) 성립과정에 있다. 과거와 현재의 정치적 극단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도 연구소 활동의 일부다.

한나 아렌트 연구소는 독재 정권의 사회경제적 조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사회 그리고 개개인을 독특하고도 거의 무제한적으로 조종·통제하려는 시도를 모두 포괄하는 독재적 지배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정립에 기여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

### 간행물:

단행본 외에 여러 책자 시리즈가 발간되고 있다.:

- 한나 아렌트 연구소 연구시리즈

- 보고서와 소연구물
- 전기

## 2. 뮌헨현대사연구소 베를린 분소 (Institut für Zeitgeschichte München Außenstelle Berlin)

### 개요:

뮌헨현대사연구소 베를린 분소는 유명한 뮌헨현대사연구소 내에서 동독사(史)를 전후 현대사의 일부분으로 연구하고 있다.

### 설립:

1994~

### 소장:

Hermann Wentker

### 주소/연락처:

Finckensteinallee 85-87

12205 Berlin

Tel.: (+49 30) 84 37 05 0

Fax: (+49 30) 84 37 05 20

E-Mail: berlin@ifz-muenchen.de

Internet: [http://www.ifz-muenchen.de/aussenstelle\\_berlin/](http://www.ifz-muenchen.de/aussenstelle_berlin/)

### 약사:

뮌헨현대사연구소는 1990년 이전부터 이미 동독사를 연구해 왔다. 동독 몰락 이후 포츠담/베를린에 독자적인 연구센터를 설립하려는 계획이 추진되어 1994년 초 포츠담의 연방문서보관소(Bundesarchiv) 근처에서 활동을 개시했으며, 포츠담 연방문

서보관소가 해체되자 1996년 6월 베를린으로 이전했다.

**목표/과제:**

베를린 분소의 연구는 동독사가 전후 현대사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하며, 결코 고립적으로 고찰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나치 독재와의 비교, 소련 및 소련 영향 하에 있던 동유럽 국가 역사와의 비교에 힘쓰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련점령지역/동독을 다룰 때 서독의 발전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분소의 연구원들은 수많은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간행물:**

수많은 개별 연구와 계간 현대사 전문지 *Vierteljahreshefte für Zeitgeschichte*에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 3. 동독 사회주의통일당-국가 공동연구그룹 (Forschungsverbund SED-Staat)

**개요:**

베를린 자유대학 내의 동독 사회주의통일당-국가 공동연구그룹은 동독 및 신연방주 전환과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프로젝트를 통합 수행하고 있다.

**설립:**

1992~

**소장:**

Klaus Schroeder, Manfred Wilke

**주소/연락처:**

Malteser Straße 74-100



12249 Berlin

Tel.: (+49 30) 83 87 02 32

Fax: (+49 30) 83 87 07 36

E-Mail: wilk@zedat.fu-berlin.de

Internet: <http://www.fu-berlin.de/fsed>

Koserstraße 21

14195 Berlin

Tel.: (+49 30) 83 85 51 41

Fax: (+49 30) 83 85 52 35

#### **약사:**

동독사 또는 통일과정을 연구하던 베를린 내 연구자들 사이에 존재하던 느슨한 형태의 연계로부터 긴밀히 조율되고 제도화된 상호협력을 추진하자는 아이디어로부터 공동연구그룹이 발전하였다. 이미 1989년 이전부터 역사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들로 구성된 이 토론그룹에서는 동독 사회주의통일당(SED) 정치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동독 지배형태로서의 독재에 관한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1992년 기준에 연구지원금을 받아 수행하던 프로젝트와 수행 예정 프로젝트들을 내용적으로 조율하는 한편 조직적으로도 연계시켰다. 이를 추진한 학자들이 여러 전공분야 또는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고 또 주제상 학제적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에 동독 사회주의통일당-국가 공동연구그룹은 처음부터 전공분야를 뛰어넘는 다학제적 특징을 가졌다. 베를린 자유대학 총장이 제공한 기초설비 덕택에 1992년 3월 설립될 수 있었으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 **목표/과제:**

동독 사회주의통일당-국가 공동연구그룹은 1989년까지 접근할 수 없었던 여러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세기 독일의 두 번째 독재가 40년 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외적, 내적 전제조건을 탐구하였다. 이 때 연구전략적으로 먼저 소련점령지역/동독의 정치, 전체주의적 국가 정당인 동독 사회주의통일당(SED)의 창당과 발전, 그리고 독일 내적 연관성 및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수많은 관련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프로젝트의 결과는 책으로 출판되었다.

**간행물:**

수많은 개별 간행물 외에 다음과 같은 것이 출판되었다:

- 『동독 사회주의통일당-국가 공동연구그룹 연구시리즈(Reihe Studien des Forschungsverbundes SED-Staat)』
- 『독재와 저항 시리즈(Reihe Diktatur und Widerstand)』
- 『동독 사회주의통일당-국가 공동연구그룹 연구페이퍼(Arbeitspapiere des Forschungsverbundes SED-Staat)』
- 『동독 사회주의통일당-국가 공동연구그룹 저널(Zeitschrift des Forschungsverbundes SED-Staat)』

**4. 포츠담 현대사연구소**

**(ZFF, Zentrum für Zeithistorische Forschung Potsdam e.V.)**

**개요:**

포츠담 현대사연구소는 동독사를 독일 전후 현대사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다.

**설립:**

1996~

**소장:**

Martin Sabrow, Konrad H. Jarausch(1998년 이래)

**주소/연락처:**

Am Neuen Markt 1

14467 Potsdam

Tel.: (+49 3 31) 2 89 91 57

Fax: (+49 3 31) 2 89 91 40

E-Mail: schneider@zzf-pdm.de

Internet: <http://www.zzf-pdm.de>

#### **약사:**

포츠담 현대사연구소는 국가과학위원회(Wissenschaftsrat)의 권고에 따라 1992년 1월 막스플랑크연구협회(Max-Planck-Gesellschaft)의 자회사로 설립된 신규학술프로젝트지원사(Förderungsgesellschaft Wissenschaftliche Neuvorhaben mbH)의 중점지원과제였던 현대사 연구(FSP)에서 태동했다.

#### **목표/과제:**

소련점령지역과 동독의 역사에 대한 비교 연구, 나치 및 동유럽 국가와의 독재 비교, 독-독 관계사 등이 중점 연구주제다. 이러한 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소는 인근 대학, 특히 포츠담 대학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10명의 인력을 포함해 포츠담 현대사연구소의 기초설비 지원은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맡는 반면, 프로젝트비용은 독일연구협회(DFG)가 지원하고 있다. 연구소는 연구 외에 공개강연회, 학술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 역사-정치적 계몽, 현대사적 주제에 관한 공론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 **간행물:**

포츠담 현대사연구소는 정기적으로 다음의 연구결과를 출간하고 있다:

- 『현대사 연구 서적시리즈(Buchreihe Zeithistorische Studien)』
- 『저널: 포츠담 현대사 연구 회보(Zeithshrift Potsdamer Bulletin für Zeithistorische Studien)』

## **5. 군사(軍史)연구청 (MGFA, Militärgeschichtliches Forschungsamt)**

#### **개요:**

군사연구청은 연방군의 군사 역사학 연구기관으로서, 1990년 이래 동독의 군사(軍史)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설립:**

1957~ (1994년 이래 포츠담에 소재)

**청장:**

Hans Ehlert 해군 대령(2004년 이래)

**주소/연락처:**

Zeppelin Straße 127/128

14471 Potsdam

우편주소:

Postfach 601 122

14411 Potsdam

Tel.: (+49 3 31) 97 14 0

Fax: (+49 3 31) 9 71 45 07

E-Mail: MGFAPresseingang@bundeswehr.org

Internet: <http://www.mgfa-potsdam.de>

**목표/과제:**

군사연구청은 현재 4개 분야를 집중 연구하고 있다: 17세기에서 19세기 후반까지의 일반 군사(軍史), 세계대전 시대, 서방동맹 내 독일 연방군사(軍史), 바르샤바 조약 내 동독 군사(軍史) 등을 주제로 하여 연구하고 있다.

**간행물:**

동독 인민군(NVA), 인민 해군(Volksmarine) 및 동독 국경수비군에 대한 수많은 개별 간행물을 발행하였다:

- 『1945-1990년 소련점령지역/동독에서의 국방안보정책 문헌목록(Bibliographie zur Militär- und Sicherheitspolitik in der SBZ/DDR 1945-1990)』, 1996.
- Torsten Diedrich, Hans Ehlert, Rüdiger Wenzke 편, 『당을 위해: 동독의 무장조직 핸드북(Im Dienste der Partei: Handbuch der Bewaffneten Organe der DDR)』, 베를린 1998.

## 6. 할레 경제연구소 (IWH,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 개요:

할레 경제연구소는 독일과 외국의 최근 경제발전 동향을 관찰하고 연구한다. 이러한 연구과제에서 구동독지역 경제의 전환과정이 연구의 중점을 이룬다.

### 설립:

1992~

### 소장:

Ulrich Blum

### 주소/연락처:

Kleine Märker Straße 8

06108 Halle (Saale)

우편주소:

Postfach 11 03 61

06017 Halle (Saale)

Tel.: (+49 3 45) 77 53 60

Fax: (+49 3 45) 7 75 38 20

E-Mail: [praesident@iwh-halle.de](mailto:praesident@iwh-halle.de)

Internet: <http://www.iwh.uni-halle.de>

### 목표/과제:

할레 경제연구소는 연방과 주(州)가 각각 50%씩 지원하는 라이프니츠연구협회 (Wissenschaftsgemeinschaft Gottfried Wilhelm Leibniz) 소속 연구기관이다. 구동독 지역 경제를 관찰·연구하면서 할레 경제연구소는 무엇보다 세계화와 인구변동의 영향에 따른 구동독지역의 노동시장 동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의 지향점은 정책적 대안을 찾는 것이다. 구동독지역 경제 외에도 연구소는 독일 전체와 유럽의

경제발전을 조사·연구한다.

**간행물:**

연방재무부의 위탁을 받아 할레 경제연구소는 다른 4개 경제 연구소(베를린 독일 경제연구소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Berlin, 킬 세계경제연구소 Institut für Weltwirtschaft an der Universität Kiel,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 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유럽경제연구센터 Zentrum für Europäische Wirtschaftsforschung)와 공동으로 2003년에 다음의 보고서를 출간했다:

- 『구동독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경제연구소의 2차 보고서(2. Fortschrittsbericht wirtschaftswissenschaftlicher Institute über di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in Ostdeutschland)』, Halle 2003.

이 외에도 할레 경제연구소는 연구 성과를 여러 시리즈물로 발간하고 있다:

- 『경제 변화(Wirtschaft im Wandel)』
- 『특별 별책』
- 『연구시리즈(1999년까지)』
- 『할레 경제연구소 시리즈(Schriftenreihe des IWH)』
- 『토론 논문(Diskussionpapiere)』

## 7. 응용정치연구센터

### (CAP, Centrum für Angewandte Politikforschung)

**개요:**

뮌헨대학(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 응용정치연구센터는 독일의 중요한 정치학 연구소이자 정치자문기관이다. 독일통일과정은 연구센터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였고 또 지금도 그러하다.

**소장:**

Werner Weidenfeld

**주소/연락처:**

Geschwister-Scholl-Institut für Politische Wissenschaft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

Maria-Theresia-Straße 21

D-81675 München

Tel.: (+49 89) 21 80 13 00

Fax: (+49 89) 21 80 13 29

E-Mail: cap.office@lrz.uni-muenchen.de

Internet: <http://www.cap.uni-muenchen.de>

**목표/과제:**

응용정치연구센터는 중점분야의 하나로 신연방주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전환을 연구하고 있다.

**간행물:**

응용정치연구센터는 독일 정치와 독일통일에 대한 수많은 출판물을 발간했다.

연방정치교육센터와 함께 응용정치연구센터는 독일통일에 관한 중요한 저서를 펴낸 바 있다:

Werner Weidenfeld/Karl-Rudolf Korte 편, 『독일통일 핸드북 1949-1989-1999년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1949-1989-1999)』, 개정최신판, Bonn 1999.





## VII. 문서보관소

1. 연방 문서보관소 동독담당국
2. 동독 당·대중조직 문서보관재단(연방 문서보관소)
3. 동독국가안전부 문서보관소
4. 외교부 정치관련 문서보관소
5. 독일 방송문서보관소
6. 베를린주 문서보관소
7. 브란덴부르크주 중앙문서보관소
8.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중앙문서보관소(슈베린)
9. 작센주 중앙문서보관서(드레스덴)
10. 작센 안할트주 중앙문서보관소
11. 튀링엔주 중앙문서보관소(바이마르)
12. 마티아스-도마실 문서보관소
13. 로버트-하베만 문서보관소
14. 그로스헤너스도르프 환경도서관 문서보관소
15. 라이프치히 시민운동 문서보관소
16. 베를린 탈출지원 문서보관소
17. 베를린 장벽 문서보관소
18. 민주사회당 문서보관소
19. 민주사회주의 문서보관소(로자 룩셈부르크 재단)



**개요:**

동독사(史) 관련 문서보관소는 매우 다양하다. 동독에 대한 문서 증빙자료를 관리하는 주요 연방 문서보관소와 주(州) 문서보관소, 개인 문서보관소를 아래에 소개한다.

독일 의회는 일반적인 30년 비공개 원칙을 동독 문헌에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인과 연구자들이 동독 문서 일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1. 연방 문서보관소 동독담당국  
(Bundesarchiv Abteilung DDR)**

**국장:**

Ernst Ritter

**주소/연락처:**

Finckensteinallee 63

12205 Berlin

우편주소:

Postfach 45 05 69

12175 Berlin

Tel.: (+49 18 88) 77 70 0

Fax: (+49 18 88) 7 77 01 11

E-Mail: berlin@barch.bund.de

Internet: <http://www.bundesarchiv.de>

**소장 자료:**

동독의 모든 부처 문서와 소련점령지역 및 동독의 기타 관공서 문서를 소장하고 있다. 연방 문서보관소 동독담당국은 일부를 제외(동독 국가안전부, 동독 외교부, 정당 및 대중 조직 제외)하고 동독의 거의 모든 사료를 포괄하고 있다.

**2. 동독 당·대중조직 문서보관재단(연방 문서보관소)  
(Stiftung Archiv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der DDR  
im Bundesarchiv Archiv)**

**소장:**

Angelika Menne-Haritz

**주소/연락처:**

Finckensteinallee 63

12205 Berlin

우편주소:

Postfach 45 05 69

12175 Berlin

Tel.: (+49 18 88) 77 70 0

Fax: (+49 18 88) 7 77 01 11

**소장 자료:**

특별문서보관재단은 동독 사회주의통일당(SED)과 모든 위성 정당(Blockparteien) 및 대중조직(FDJ, FDGB, DSF 등)의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

**3. 동독 국가안전부 문서보관소  
(Die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bteilung Archivbestände)**

**소장:**

Birgit Salamon

**주소/연락처:**

Otto-Braun-Straße 70-72

10178 Berlin

**우편주소:**

Postfach 218

10106 Berlin

Tel.: (+49 30) 2 24 17 - 0

Fax: (+49 30) 22 41 88 49

E-Mail: post@bstu.de

Internet: <http://www.bstu.de>

**소장 자료:**

동독 국가안전부와 그 전신 및 후신의 모든 문서(1945~1990)를 보관하고 있다.

**4. 외교부 정치관련 문서보관소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소장:**

Dr. Biewer

**주소/연락처:**

Kurstraße 33

10117 Berlin

**우편주소:**

11013 Berlin

Tel.: (+49 18 88) 17 21 79

Fax: Tel.: (+49 18 88) 17 39 48

E-Mail: [117-r@auswaertiges-amt.de](mailto:117-r@auswaertiges-amt.de)

Internet: <http://www.auswaertiges-amt.de>

**소장 자료:**

연방정부의 동방정책에 관한 문서 및 1949~1990년까지의 동독 외교부 문서 일체를 보관하고 있다.

**5. 독일 방송문서보관소  
(Deutsches Rundfunkarchiv Standort Babelsberg)**

**소장:**

Peter-Paul Schneider

**주소/연락처:**

Marlene-Dietrich-Allee 20

14482 Potsdam

**우편주소:**

Postfach 90 03 63

14439 Potsdam

Tel.: (+49 3 31) 5 81 21 03

Fax: (+49 3 31) 5 81 21 99

E-mail: sekretariat@dra.de

Internet: <http://www.dra.de>

**소장 자료:**

1945~1991년까지의 소련 점령지역/동독 방송, 1952~1991년까지의 독일텔레비전방송(Deutscher Fernsehfunk)/동독텔레비전(Fernsehen der DDR), 녹음 및 영화 테이프(1952년 설립된 독일텔레비전방송은 1972년 동독텔레비전으로 개칭되었다. 전환기 이후에 동독텔레비전은 다시 독일텔레비전방송으로 바뀌었다가 1991년 말 방송을 중단했다) 등을 보유하고 있다.

## 6. 베를린주(州) 문서보관소 (Landesarchiv Berlin)

소장:

N. N.

주소/연락처:

Eichborndamm 115-121

13403 Berlin

Tel.: (+49 30) 90 26 4 0

Fax: (+49 30) 90 26 42 01

E-Mail: [info@landesarchiv-berlin.de](mailto:info@landesarchiv-berlin.de)

Internet: <http://www.landesarchiv-berlin.de>

소장 자료:

동독의 베를린시 평의회(Magistrat)와 그 관할기관, 베를린시 내의 각 지구(Stadtbezirk) 평의회와 그 관할기관, 베를린시의회 및 시지구 의회, 베를린 담당 동독 기관, 동독의 정당 및 대중조직(SED, FDGB, FDJ 등)의 베를린 지부의 지도부, 베를린 내 국영업체 및 지방공기업, 당 간부 인물 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다.

## 7. 브란덴부르크주 중앙문서보관소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소장:

Dr. Klaus Neitmann

주소/연락처:

Zum Windmühlenberg

14469 Potsdam

우편주소:

Postfach 60 04 49

14404 Potsdam

Tel.: (+49 3 31) 5 67 41 20

Fax: (+49 3 31) 5 67 41 12

E-Mail: [poststelle@blha.brandenburg.de](mailto:poststelle@blha.brandenburg.de)

Internet: <http://www.landeshauptarchiv-brandenburg.de>

**소장 자료:**

1. 1945~1952 브란덴부르크 주 중앙·지방 관공서 및 공공시설
2. 1952~1990 코트부스(Cottbus), 프랑크푸르트/오더(Frankfurt/Oder), 포츠담(Potsdam) 등 3개 지구(Bezirk)의 국가기관 및 경제기관과 그 산하 공공시설
3. 1945~1989/90년 코트부스, 프랑크푸르트/오더, 포츠담 등 3개 지구의 정당 및 사회단체
4. 1945~1990 기업 및 경제 관련 기관
5. 1945~1990 동독 중앙기관의 산하 공공시설
6. 1990년 이후 브란덴부르크 주의 관공서 및 공공시설

**8.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중앙문서보관소(슈베린)  
(Landeshauptarchiv Mecklenburg-Vorpommern Schwerin)**

**소장:**

Andreas Rpcke

**주소/연락처:**

Graf-Schack-Allee 2



19053 Schwerin

Tel.: (+49 3 85) 5 92 96 - 0

Fax: (+49 3 85) 5 95 96 12

E-Mail: [poststelle@landeshauptarchiv-schwerin.de](mailto:poststelle@landeshauptarchiv-schwerin.de)

Internet: <http://www.landeshauptarchiv-schwerin.de>

**소장 자료:**

1945~1952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중앙·지방 관공서 및 공공시설

1952~1990 슈베린(Schwerin), 노이브란덴부르크(Neubrandenburg) 등 2개 지구의 국  
가기관 및 경제기관과 그 산하 공공시설

1945~1989/90 슈베린, 노이브란덴부르크 등 2개 지구 내 정당 및 사회단체

1945~1990 기업 및 경제 관련 기관

1945~1990 동독 중앙기관의 산하 공공시설

**9. 작센주 중앙문서보관소(드레스덴)  
(Sächsisches Hauptstaatsarchiv Dresden)**

**주소/연락처:**

Archivstraße 14

01097 Dresden

**우편주소:**

Postfach 10 04 44

01074 Dresden

Tel.: (+49 3 51) 80 06 0

Fax: (+49 3 51) 8 02 12 74

E-Mail: [poststelle-d@sta.smi.sachsen.de](mailto:poststelle-d@sta.smi.sachsen.de)

Internet: <http://www.sachsen.de/bf/verwaltung/archivverwaltung>

**소장 자료:**

1945~1952 작센주 국가기구 · 국영기업 · 정당 · 대중조직 문서

1952~1990 드레스덴 지구의 국가기구 · 국영기업 · 정당 · 대중조직 문서

1946~1989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지구당 관련 문서

**10. 작센-안할트주 중앙문서보관소  
(Landeshauptarchiv Sachsen-Anhalt)**

**소장:**

Ulrike Hroldt

**주소/연락처:**

Hegelstraße 25

39104 Magdeburg

**우편주소:**

Postfach 4023

39015 Magdeburg

Tel.: (+49 391) 56 64 3

Fax: (+49 391) 5 66 44 40

E-Mail: [poststelle@lha.mi.lsa-net.de](mailto:poststelle@lha.mi.lsa-net.de)

Internet: -

**소장 자료:**

1945~1952 작센-안할트주 국가기구 · 국영기업 · 정당 · 대중조직 문서

1952~1990 할레(Halle)와 막테부르크(Magdeburg) 등 2개 지구의 국가기구 · 국영기업 · 정당 · 대중조직 문서

11. 튀링엔주 중앙문서보관소(바이마르)  
(Thüringisches Hauptstaatsarchiv Weimar)

소장:

Volker Wahl

주소/연락처:

Marstallstraße 2

99423 Weimar

우편주소:

Postfach 27 26

99408 Weimar

Tel.: (+49 36 43) 8 70 0

Fax: (+49 36 43) 87 01 00

E-Mail: thstaweimar@thueringen.de

Internet: <http://www.thueringen.de/staatsarchive>

소장 자료:

1945~1952 튀링엔주 관공서의 문서

1952~1990 에어푸르트(Erfurt) 지구의 국가기관 및 경제기관

1946~1952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튀링엔주 지부당 및 에어푸르트 지구당 문서

1945~1990 튀링엔주 및 에어푸르트 지구 내 대중조직

1945~1990 기업 및 경제 관련 기관

1949~1990 동독 중앙관공서 산하 공공시설

**12. 마티아스 도마셴 문서보관소(로버트-하베만협회)  
(Matthias-Domaschk-Archiv, Der Robert-Havemann-Gesellschaft e.V.)**

**소장:**

Andreas Ottot

**주소/연락처:**

Schliemannstraße 23

10437 Berlin

Tel.: (+49 30) 44 71 08 20

Fax: (+49 30) 44 71 08 29

E-Mail: andreas.otto@havemann-gesellschaft.de

Internet: <http://www.havemann-gesellschaft.de>

**소장 자료:**

동독의 반정부 그룹과 민권운동가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13. 로버트-하베만 문서보관소(로버트-하베만협회)  
(Robert-Havemann-Archiv, der Robert-Havemann-Gesellschaft e.V.)**

**소장:**

Werner Theunert

**주소/연락처:**

Schliemannstraße 23

10437 Berlin

Tel.: (+49 30) 44 71 08 10

Fax: (+49 30) 44 71 08 19

E-Mail: [werner.theunert@havemann-gesellschaft.de](mailto:werner.theunert@havemann-gesellschaft.de)

Internet: <http://www.havemann-gesellschaft.de>

**소장 자료:**

로버트 하베만이 남긴 문서와 민권운동가들의 개인 문서, 1989/90년 시민운동과 동독 원탁회의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14. 그로스헨너스도르프 환경도서관 문서보관소  
(Archiv der Umweltbibliothek Grosshennersdorf)**

**소장:**

Andreas Schönfelder

**주소/연락처:**

Am Sportplatz 3

02747 Großhennersdorf

Tel.: (+49 3 58 73) 3 09 20

Fax: (+49 3 58 73) 3 09 21

E-Mail: [mail@umweltbibliothek.org](mailto:mail@umweltbibliothek.org)

Internet: <http://www.umweltbibliothek.org>

**소장 자료:**

동독 반정부 세력의 “회색 문건”(잡지, 전단, 포스터, 서적, 기타 증언기록), 오버라우지츠(Oberlausitz) 지역과 동독에서의 평화운동·환경운동·민권운동·시민운동에 관한 기록물, 1987년 이래 그로스헨너스도르프 환경도서관의 활동에 대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다.

**15. 라이프치히 시민운동 문서보관소  
(Archiv Bürgerbewegung Leipzig e. V.)**

**소장:**

Monika Keller

**주소/연락처:**

Katharinenstraße 11, Fregehaus

04109 Leipzig

Tel.: (+49 3 41) 861 16 26

Fax: (+49 3 41) 861 16 26

E-Mail: [info@archiv-buergerbewegung.de](mailto:info@archiv-buergerbewegung.de)

Internet: <http://www.archiv-buergerbewegung.de>

**소장 자료:**

라이프치히와 작센 지역에 중점을 둔 광범위한 동독의 반정부 세력·교회 관련 자료 및 1989/90년 시민운동에 관한 자료

1980~ 1990 동맹 90(Bündnis 90)·녹색당에 관한 자료

1990~ 청산 이니셔티브와 희생자단체에 관한 자료.

**16. 베를린 탈출지원 문서보관소  
(Berliner Fluchthilfe-Archiv)**

**소장:**

Rainer Schubert

**주소/연락처:**

Machnower Straße 66

14165 Berlin

Tel.: (+49 30) 70 13 25 42

Fax: (+49 30) 70 13 25 24

E-Mail: -

Internet: -

**소장 자료:**

동독 탈출주민에 대한 지원 역사, 동독에서의 구금 실태, 정치범에 대한 형사사법, 국가안전부의 공작 등에 관한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다.

**17. 베를린 장벽 문서보관소  
(Berliner Mauer-Archiv)**

**소장:**

Hagen Koch

**주소/연락처:**

c/o Hagen Koch

Alt-Friedrichsfelde 83

10315 Berlin

Tel.: (+49 30) 51 05 58 52

Fax: (+49 30) 51 05 58 53

E-Mail: Berliner.Mauer.Archiv@t-online.de

Internet: -

**소장 자료:**

개인 문서보관소로 베를린 장벽과 동독 국경수비대의 역사에 관한 기록물, 사진, 지도, 녹음 기록물 등을 소장하고 있다.

**18. 민주사회당 문서보관소  
(Archiv beim Parteivorstand  
der 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소장:**

Lothar Hornbogen

**주소/연락처:**

Kleine Alexanderstraße 28

10178 Berlin

Tel.: (+49 30) 2 40 09 0

Fax: (+49 30) 24 00 95 41

E-Mail: -

Internet: <http://www.sozialisten.de>

**소장 자료:**

1994년 이래 민주사회당(PDS)의 전당대회, 당 의장단, 당수에 관한 모든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다. 1989년 12월(동독 사회주의통일당의 후신으로서 민주사회당 설립)에서 1994년까지의 문서는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의 민주사회주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



19. 민주사회주의 문서보관소(로자 룩셈부르크 재단)  
(Archiv Demokratischer Sozialismus  
in der Rosa Luxemburg Stiftung)

소장:

Jochen Weichold

주소/연락처:

Franz-Mehring Platz 1

10243 Berlin

Tel.: (+49 30) 44 31 01 21

Fax: (+49 30) 44 31 02 22

E-Mail: weichold@rosalux.de

Internet: <http://www.rosalux.de/Stiftung/Bereiche/Bib/index.htm>

소장 자료:

민주사회당(PDS) 의장단과 인민의회 및 연방하원 원내 그룹 자료, 민주사회당과 관련된 사진, 포스터, 전단, 필름, 비디오, 신문 스크랩 등이 보관되어 있다.



## VIII. 박물관, 기념관

1. 독일 역사박물관
2. 독일 연방공화국 역사의 집
3. 라이프치히 현대사 포럼
4. 소련 특별수용소 7/1(1945-1950) 박물관
5. 마리아엔본 독일분단 기념관
6. 라이프치히 '룬덴 에케' 박물관
7. 베를린-호엔쇤하우젠 기념관
8. 노만넨슈트라세 아스타 연구·기념관
9. 베를린 장벽 기념관



**개요:**

독일 연방공화국에는 동독 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의 희생자와 40년 이상의 분단 상황을 기억하기 위한 많은 박물관과 기념관이 존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 중 중요한 기관을 간략히 소개한다.

**1. 독일 역사박물관  
(Deutsches Historisches Museum)**

**개요:**

독일 역사박물관은 Bonn에 소재한 '역사의 집(Haus der Geschichte)'과 함께 20세기 독일사(史)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박물관으로서 기획전시 등을 통해 동독 과거사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독일 역사박물관은 1990년 문을 닫은 동베를린 독일사 박물관(Ostberliner Museum für Deutsche Geschichte)의 소장품을 인수했다.

**관장:**

Hans Ottomeyer

**주소/연락처:**

Unter den Linden 2

10117 Berlin

Tel.: (+49 30) 20 30 4 0

Fax: (+49 30) 20 30 42 02

E-mail: vor@dhm.de

Internet: <http://www.dhm.de>

## 2. 독일 연방공화국 역사의 집 (Haus der 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개요:

독일 연방공화국 역사의 집은 서독의 역사적 발전과 민주주의적 전통을 국내외 많은 일반인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이해와 책임을 고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우리 국가와 분단된 민족의 역사에"(1982년 10월 13일 연방총리 헬무트 콜) 바쳐진 이 역사의 집은 동독의 내적 발전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전시하고 있다.

### 관장:

Hermann Schäfer

### 주소/연락처:

Willy-Brandt-Allee 14

53113 Bonn

### 우편주소:

Postfach 12 06 15

53048 Bonn

Tel.: (+49 2 28) 91 65 0

Fax: (+49 2 28) 9 16 53 02

E-mail:post@hgd.de

Internet: <http://www.hdg.de>

**3. 라이프치히 현대사 포럼(독일 연방공화국 역사의 집)**  
**(Zeitgeschichtliches Forum Leipzig**  
**des Hauses der 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개요:**

라이프치히 도심에 위치한 이 박물관은 분단을 배경으로 동독 내 반정부세력, 저항, 시민의 용기를 상기시키고 있다. 전시·기록물·정보센터로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독일 현대사에 대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

Rainer Eckert

**주소/연락처:**

Grimmaische Straße 6

04109 Leipzig

Tel.: (+49 3 41) 22 20 0

Fax: (+49 3 41) 2 22 05 00

E-mail: zfl@hdg.de

Internet: <http://www.hdg.de/zfl>

**4. 소련 특별수용소 7/1(1945~1950) 박물관(작센하우젠)**  
**(Museum "Sowjetisches Speziallager Nr. 7/Nr. 1(1945 - 1950)**  
**in Sachsenhausen")**

**개요:**

소련점령지역(1945~1950)에 있었던 10개의 특별수용소 중 가장 큰 곳에 설립된 박물관이다. 소련 비밀정보기관 NKWD가 특별수용소를 이전의 작센하우젠 나치 강

계수용소에 세웠기 때문에 동 박물관은 작센하우젠 박물관과 기념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장:**

Günter Morsch

**주소/연락처:**

Straße der Nationen 22

16515 Oranienburg

Tel.: (+49 33 01) 81 09 12

Fax: (+49 33 01) 81 09 28

E-mail: [info@gedenkstaette-sachsenhausen.de](mailto:info@gedenkstaette-sachsenhausen.de)

Internet: <http://www.gedenkstaette-sachsenhausen.de>

## 5. 마리엔본 독일분단 기념관 (Gedenkstätte Deutsche Teilung Marienborn)

**개요:**

1945~1990까지 동서독 국경인 마리엔본-헬름슈테트(Marienborn-Helmstedt)에는 동독 국경검문소가 있었다. 과거 국경검문소가 현재 마리엔본 독일분단 기념관으로 바뀌어 독일 분단사를 증언하고 있다.

**관장:**

Joachim Scherrieble

**주소/연락처:**

독일분단 기념관(Gedänkstätte Deutsche Teilung)

An der Bundesbahn A2



39365 Marienborn

Tel.: (+49 3 94 06) 92 09 0

Fax: (+49 3 94 06) 9 20 99

E-mail: gedenkstaette@marienborn.de

Internet: <http://www.marienborn.de/marienborn/Marienborn.htm>

## 6. 라이프치히 '룬덴 에케' 박물관 (Museum in der 'Runden Ecke' Leipzig)

### 개요:

룬덴 에케는 동독 국가안전부 라이프치히 지부의 소재지였다. 1990년 박물관으로 개조되어 '슈타지 - 권력과 일상성'(Stasi - Macht und Banality)이라는 상설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박물관의 운영단체는 구(舊)국가안전부 해체를 위해 활동한 라이프치히 시민위원회이다.

### 주소/연락처:

Dittrichring 24

04109 Leipzig

우편주소:

Postfach 10 03 45

04003 Leipzig

Tel.: (+49 3 41) 9 61 24 43

Fax: (+49 3 41) 9 61 24 99

E-mail: [mail@runde-ecke-leipzig.de](mailto:mail@runde-ecke-leipzig.de)

Internet: <http://www.runde-ecke-leipzig.de>

## 7. 베를린 호엔쇤하우젠 기념관 (Gedenkstätte Berlin-Hohenschönhausen)

### 개요:

소련점령지역내 중앙 소련구치소였다가 50년대 초 국가안전부가 인수하여 1990년까지 중앙구치소로 사용한 베를린 호엔쇤하우젠 구치소에 세워진 이 기념관은 공산주의 테러와 그 희생자를 상기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다.

### 소장:

Hubertus Knabe

### 주소/연락처:

Genslerstraße 66

13055 Berlin

Tel.: (+49 30) 98 60 82 30

Fax: (+49 30) 9 86 08 24 64

E-mail: [info@stiftung-hsh.de](mailto:info@stiftung-hsh.de)

Internet: <http://www.stiftung-hsh.de>

## 8. 노만넨슈트라세 아스타크 연구 · 기념관 (Forschungs- und Gedenkstätte Normannenstrasse ASTAK e.V.)

### 개요:

1990년 시민운동에서 유래한 아스타크는 20세기 독일의 두 번째 독재(동독 공산당)에 대한 진상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가안전부 관청 1관에는 다양한 전시회가 열리고 또 장관 집무실 층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관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전문가이드 외에도 강연회와 세미나가 주최된다.

**소장:**

Jörg Drieselmann

**주소/연락처:**

Ruschestraße 103, Haus 1

10365 Berlin

Tel.: (+49 30) 5 53 68 54

Fax: (+49 30) 5 53 68 53

E-mail: info@stasi-museum.de

Internet: <http://www.stasi-museum.de>

## 9. 베를린 장벽 기념관 (Gedenkstätte Berliner Mauer)

**개요:**

역사적인 장소에 세워진 베를린 장벽 기념관은 1961년 8월 13일 ~ 1989년 11월 9일까지의 베를린 분단과 공산주의 폭력지배의 희생자들을 기념하고 있다.

**소장:**

Maria Nooke

**주소/연락처:**

Bernauer Straße 111

13355 Berlin

Tel.: (+49 30) 4 64 10 30

Fax: (+49 30) 46 06 97 40

E-mail: info@berliner-mauer-dokumentationszentrum.de

Internet: <http://www.berliner-mauer-dokumentationszentrum.de>



## IX. 정기 간행물

1. 도이칠란트 아히브
2. SED-Staat 포르슈페어분트지(誌)
3. 슈타헬드라트
4. 호르흐 운트 굽
5. 게버가세 18



# 1. 도이칠란트 아히브 (Deutschland Archiv, Zeitschrift für das Vereinigte Deutschland)

## 개요:

'도이칠란트 아히브 - 통일독일 저널'은 동독 연구와 통일된 독일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중요한 현대사 연구 저널이다.

## 창간:

도이칠란트 아히브는 1968년 이래 출간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소련점령지역 및 동독을 주제로 한 PZ-아히브 및 SBZ(소련점령지역)-아히브(1950~1952 및 1952~1968)라는 제호로 발간되었었다.

## 발행인:

연방 정치교육센터(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 주소/연락처:

편집자: Marc-Dietrich Ohse

W. Bertelsmann-Verlag

Auf dem Esch 4

33619 Bielefeld

Tel.: (+49 5 11) 56 37 48 98

Fax: (+49 5 21) 56 37 48 99

E-Mail: deutschlandarchiv@wbv.de

## 발행 부수:

7,000 부

## 내용:

도이칠란트 아히브는 통일된 독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포럼으로 이해될 수 있다. 통일 독일의 정치·사회·문화적 동반성장이 저널의 핵심주제다. 이 저널은 특히

독일 분단사에 대한 성찰, 독일정책(Deutschlandpolitik), '전환기(Wende)', 통일, 그리고 신연방주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 또한 최근 시사문제에 대한 논평 코너와 논문, 에세이 및 분석, 기록문서, 학술회의 보고서, 서평 등을 싣고 있다. 이 외에 도이칠란트 아히브는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동독연구 최신동향'을 출간한다. 도이칠란트 아히브는 격월로 연간 총 6회 발간된다.

## **2. SED-Staat 포르숨스페어분트지(誌)** **(Zeitschrift des Forschungsverbundes SED-Staat)**

### **개요:**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공동연구그룹(Forschungsverbund)의 동독사 연구 결과를 게재하는 정기 간행물이다.

### **창간:**

1996~

### **발행인:**

베를린자유대학 내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공동연구그룹  
(Forschungsverbund SED an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 **주소/연락처:**

편집인: Pamela Böse

Koserstraße 21

14195 Berlin

Tel.: (+49 30) 83 85 58 53

E-Mail: [zdfsed@zedat.fu-berlin.de](mailto:zdfsed@zedat.fu-berlin.de)

Internet: <http://www.fu-berlin.de/fsed/zdf.html>



**발행 부수:**

500~1,000 부

**내용:**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공동연구그룹의 연구 결과 외에 동독 및 전체주의에 대한 연구 논문을 싣고 있으며, 1년에 2번 출간된다.

### **3. 슈타헬드라트 - 자유, 정의, 민주주의를 위한 저널 (Der Stacheldraht - Zeitschrift für Freiheit, Recht und Demokratie)**

**개요:**

슈타헬드라트는 공산주의 독재 희생자들의 글을 싣고 있다.

**창간:**

1991~

**발행인:**

공산주의 폭력지배 희생자단체연맹(Union der Opferverbände kommunistischer Gewaltherrschaft e. V), 스탈린 박해 희생자연합(Bund der Stalinistisch Verfolgten e.V.),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 단체연합(Landesverband Berlin-Brandenburg)

**주소/연락처:**

편집인: Sybille Ploog

Ruschestraße 103, Haus 1

10365 Berlin

Tel.: (+49 30) 55 49 63 34

Fax: (+49 30) 55 49 63 35

E-Mail: drahtstachel@compuserve.de

Internet: <http://www.bsv-stacheldraht.de>

**발행 부수:**

11,500 부

**내용:**

슈타헬드라트(철조망이라는 뜻)를 통해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의 희생자들에게 당시 사건 및 보상, 복권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포럼이 제공된다. 슈타헬드라트는 부정기 간행물로 1년에 수차례 발간된다.

#### 4. 호르흐 운트 그

(Horch und Guck: Historisch-Literarische Zeitschrift des  
Bürgerkomitees '15. Januar' e.V.)

**내용:**

호르흐 운트 그(‘보고 듣기’라는 뜻) - ‘1월 15일’ 시민위원회 역사-문학저널은 1990년 1월 15일 동독국가안전부 베를린 청사에 대한 감독을 맡게 된 시민위원회가 발간하는 저널로서 동독의 현대사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창간:**

1992~

**발행인:**

‘1월 15일’ 시민위원회(Bürgerkomitee '15. Januar' e. V.)

**주소/연락처:**

편집인: Erhard Weinholz

Ruschestraße 103, Haus 1

10365 Berlin

Tel.: (+49 30) 57 79 49 81

Fax: (+49 5 21) 57 79 49 80

E-Mail: horch-und-guck@buengerkomitee.org

Internet: <http://www.buengerkomitee.org/hug/hgkopf.html>

**발행 부수:**

1,000~1,500 부

**내용:**

호르흐 운트 굽은 내용적으로 국가안전부·동독 사회주의통일당·블록정당·여타 사회조직 및 기관 등이 수행한 동독의 지배구조 규명을 다룬다. 비밀정보기관의 조사방법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당사자와 희생자, 저항인사에 대한 통일 독일의 대처에 대한 기록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호르흐 운트 굽은 또 동독 시민운동세력과 반정부세력이 통일 후 펼쳐고 있는 정치적 노력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 5. 게버가세 18, 역사 및 예술 포럼 (Gerbergasse 18, Forum für Geschichte und Kultur)

**개요:**

동독 민권운동권에서 태동한 '게버가세 18 - 역사 및 예술 포럼'은 동독 과거사 청산에 주력하고 있다.

**창간:**

1996~

**발행인:**

예나 역사작업실(Geschichtswerkstatt Jena e. V.), 튀링엔주 동독 국가안전부 문서관  
리청

**주소/연락처:**

편집인: Heinz Voigt

Gerbergasse 18

07743 Jena

Tel.: (+49 36 41) 82 12 35

Fax: (+49 36 41) 82 12 35

E-Mail: geschichtswerkstatt.jena@t-online.de

Internet: <http://www.geschichtswerkstatt-jena.de>

**발행 부수:**

1,500 부

**내용:**

저널의 명칭과 주소는 예나에 있던 슈타지 지방분소의 위치다. 게버가세 18과 발행  
기관인 예나 역사작업실의 운영자는 구동독 민권운동가 출신이다. 내용적으로는 주  
로 동독의 반정부세력·스포츠·저널리즘 역사와 국가안전부 및 동독 정당사를 다  
루고 있다. 1년에 4번 출간되는 저널은 각호마다 특별기획을 싣고 있다.

## X. 시민운동 이니셔티브

1. 시민운동연합
2. 공산주의 폭력 희생자단체 연맹
3. 스탈린주의 희생자 연합
4. 로버트-하버만 협회
5. 국가안전부 과거청산 1·15 시민위원회
6. 유럽 정치폭력 희생자 지원연합
7. 민주주의·인권의 집



## 1. 시민운동연합 (Bürgerbüro e.V.)

### 개요:

시민운동연합 -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 피해 청산연합은 1996년 설립되었다. 이 단체의 목표는 동독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은 피해자들을 자문·지원하며 이들을 위해 대외활동도 펼치고 있다. 또한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의 청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 주소/연락처:

Bernauer Straße 111

13355 Berlin

Tel.: (+49 30) 4 63 48 06

Fax: (+49 30) 4 63 57 18

E-mail: info@buergerbuero-berlin.de

Internet: <http://user.berlin.sireco.net/buergerbuero>

## 2. 공산주의 폭력 희생자 단체 연맹 (Union der Opferverbände kommunistischer Gewaltherrschaft e.V.)

### 개요:

공산주의 폭력 희생자 단체 연맹은 18개 단체의 연합조직이다. 1991년 설립되어 공산주의의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에 기여하고 독재로 인한 희생자를 자문·지원하며 정치적 접촉창구의 역할을 담당한다.

### 위원장:

Horst Schüler

**주소/연락처:**

Genslerstraße 66

13055 Berlin

Tel.: (+49 30) 9 86 08 21 45

Fax: (+49 30) 9 86 08 24 68

E-mail: info@uokg.de

Internet: <http://www.uokg.de>

**3. 스탈린주의 희생자 연합  
(Vereinigung der Opfer des Stalinismus e.V.(VOS))**

**개요:**

스탈린주의 희생자 연합은 정치범으로 투옥되었던 인사들의 연합으로서 가장 오래 된 희생자 이니셔티브 중의 하나이다. 1950년 설립되어 13개 주(州)에 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범 수형자와 그 유가족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상담활동도 펼치고 있다.

**위원장:**

Bernd Stichler

**주소/연락처:**

Stresemannstraße 90

10963 Berlin

Tel.: (+49 30) 26 55 23 80

Fax: (+49 30) 26 55 23 82

E-mail: VOS-Berlin@vos-fg.de

Internet: <http://www.vos-fg.de>



#### 4. 로버트-하베만 협회 (Robert-Havemann-Gesellschaft e.V.)

**개요:**

로버트-하베만 협회는 동독 및 동유럽에서의 반정부세력과 시민운동의 역사와 경험을 연계하기 위해 1990년 11월 19일 설립되었다. 사업 목적을 위해 출판 및 문서화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세미나와 기타 행사를 조직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협회 내 문서보관소에 소장된 자료와 기록물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1992년 5월 문서보관소 설치를 시작해 1년 후인 1993년 7월 유명한 베를린 환경도서관(Berliner Umwelt-Bibliothek)의 마티아스 도마쉬 문서보관소를 통합하였다.

**위원장:**

Andreas Otto

**주소/연락처:**

Schliemannstraße 23

10437 Berlin

Tel.: (+49 30) 44 71 08 10

Fax: (+49 30) 44 71 08 19

E-Mail: andreas.otto@havermann-gesellschaft.de

Internet: <http://www.havermann-gesellschaft.de>

#### 5. 국가안전부 과거청산 '1.15' 시민위원회 (Bürgerkomitee '15. Januar' e. V. Verein zur Aufarbeitung der Stasi-Vergangenheit)

**개요:**

국가안전부 청사 및 동독 중앙원탁회의 안보 실무그룹의 해체를 위한 노만넨슈트

라세(Normannenstraße) 시민위원회를 모태로 하여 1991년 2월 12일 설립되었다. 여기에 여러 다른 시민운동가들과 동조자들이 가담했다. 시민위원회는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국가안전부 및 비밀정보기관에 대한 매체 및 기록물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르흐 운트 그크'(Horch und Guck)이라는 저널을 발간하고 있다.

**주소/연락처:**

Ruschestraße 103, Haus 1

10365 Berlin

Tel.: (+49 30) 5 53 05 51

Fax: (+49 30) 57 79 49 80

E-mail: info@buergerkomitee.org

Internet: <http://www.buergerkomitee.org>

**6. 유럽 정치폭력 희생자 지원연합  
(HELP e. V. Hilfsorganisation für die Opfer  
politischer Gewalt in Europa)**

**개요:**

유럽 정치폭력 희생자 지원연합은 공산주의와 국가사회주의 폭력 통치의 희생자와 박해피해자들을 자문·지원하고 있으며, 복권·재정 보조, 관공서와의 협의 등과 관련된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상담소이자 접촉창구이다.

**주소/연락처:**

Ruschestraße 103, Haus 1

10365 Berlin

Tel.: (+49 30) 5 53 67 67

Fax: (+49 30) 5 53 67 67

E-mail: [helpev@web.de](mailto:helpev@web.de)

Internet: <http://www.help-e-v.de>

## 7. 민주주의 · 인권의 집 (Haus der Demokratie und Menschenrechte)

### 개요:

민주주의 · 인권의 집은 동독의 시민운동과 서독의 인권운동이 한 지붕 아래에서 만나는 곳이다. 독일 시민운동의 이념과 실천을 위한 작업센터로서 모든 관련 이니셔티브와 비정부조직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약 70개 그룹과 프로젝트가 이곳에서 추진되었다. 운영은 한 재단과 단체가 맡고 있다. 1989년 12월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소유였던 베를린 프리드리히 거리(Friedrichstraße) 16번지 건물을 동독 중앙원탁회의가 시민운동세력에게 인계하면서 설립되었다.

### 주소/연락처:

Greifswalder Straße 4

10405 Berlin

Tel.: (+49 30) 2 04 35 06

Fax: (+49 30) 2 04 12 63

E-mail: [kontakt@hausderdemokratie.de](mailto:kontakt@hausderdemokratie.de)

Internet: <http://www.hausderdemokratie.de>



## ※ 독일통일 연구를 위한 기타 안내서

아래의 자료는 본 편람을 보충할 수 있는 참고문헌으로, 본 책자에서 언급된 동서독 통합 관련 기관을 넘어서는 보다 광범위한 기관을 담고 있다.

1. 연방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Bu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미해결 재산문제 처리 분야의 관공서 목록(Verzeichnis der Behörden für den Bereich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베를린 2003.
2. Ulrich Mählert 편, 『동독 연구 편람(Vademekum DDR-Forschung): 문서보관소, 연구기관, 도서관, 정치교육기관, 단체, 박물관, 기념관』, 제 3판, 베를린 2002.(독재청산재단의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음: <http://www.stiftung-aufarbeitung.de>)
3.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 편, 『소련점령지역/동독에서의 정치적 박해 희생자를 위한 상담 제공 협회·단체·이니셔티브 및 기관 개관(Übersicht über Vereine, Verbände, Initiativen und Institutionen mit Beratungsangeboten für Opfer politischer Verfolgung in der SBZ/DDR)』, 제 3판, 베를린 2002.(독재 청산재단 홈페이지 <http://www.stiftung-aufarbeitung.de>에서 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음)



## 동서독 통합 관련 기관 편람

(Die Institutionen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im Überblick)

---

인 쇄 : 2006. 4. .

발 행 : 2006. 4. .

발행처 : 통일부 정책홍보실

정 책 기 획 팀

전 화 : (02) 2100-5733

F A X : (02) 2100-5739

<http://www.unikorea.go.kr>

---

<비매품>

